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최일섭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교회 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hurch
Resources for Community Welfare

2004년 8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조 석 미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최일섭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교회 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hurch
Resources for Community Welfare

위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8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조 석 미

조석미의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정함

2004년 8월 일

심사 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3
제 3 절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지역사회복지와 교회의 관계	5
제 1 절 지역사회복지의 의의	5
제 2 절 교회의 본질과 기독교 사회복지 개념	12
제 3 절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	15
제 4 절 교회의 지역사회복지사업 전개과정	20
1. 도입기 (1880~1904)	20
2. 계몽기 (1905~1945)	24
3. 재건기 (1946~1989)	29
4. 성장기 (1990~현재)	33
제 3 장 교회자원의 유형별 평가	35
제 1 절 인적자원	35
제 2 절 시설자원	41
제 3 절 재정자원	45
제 4 절 프로그램자원	50
제 5 절 문제점	57

제 4 장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교회자원 활용방안	60
제 1 절	지역사회와 교회간 관계 정립	60
1.	교회와 지역의 복지협력 체계 구축	61
2.	교회시설의 지역사회 센터화	63
3.	諸자원의 조직화	63
제 2 절	교회자원의 유형별 활성화방안	64
1.	인적자원	66
2.	시설자원	68
3.	재정자원	69
4.	프로그램자원	70
제 5 장	결 론	72
참고문헌		75
ABSTRACT		79

표 목 차

<표 3-1>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교인들의 호응도	37
<표 3-2>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39
<표 3-3> 목회자의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	40
<표 3-4> 기독교 계통 사회복지 시설현황	42
<표 3-5> 교회의 시설자원	43
<표 3-6> 교회 부대시설 실태	43
<표 3-7> 사회봉사사업 실시상 또는 계획상 어려움	44
<표 3-8> 교회의 재산과 수입현황	46
<표 3-9> 연간 사회봉사비 지출 비율	47
<표 3-10> 한국교회의 예산의 주요 부문별 지출분포 현황	47
<표 3-11> 연간 사회봉사비 지출실태	48
<표 3-12> 교회예산 지출항목의 지역별 실태	49
<표 3-13> 주요 부문별 지출 비율의 백분율 분포	50
<표 3-14>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사업현황	52
<표 3-15> 교회의 실직자 지원 사회봉사 현황	52
<표 3-16> 지역사회 봉사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실천여부	53
<표 3-17> 교회들이 실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56

그 립 목 차

<그림 2-1> 일본의 사회복지 패러다임	10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사회복지의 생성동기에는 인간사회 내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 어느 인간 사회에서나 소외된 개인이나 집단을 도우려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모든 사회복지의 보편적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은 종교적 계명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자선을 베풀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종교적 동기는 개인적 자선행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조직화되어 기관이나 시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제도화(institutionalize)되어 사회제도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대사회에 와서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사회복지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종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종교의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역할은 인간이 종교를 신봉하는 한 지속되고 확대시켜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실제로 서구를 비롯해 우리사회에서도 사회복지 부문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는 종교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이태수는 현재 사회복지 시설의 54.9%가 종교계의 운영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상당수의 미신고 시설들이 종교계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 이와 같이 기독교를 포함한 한국의 종교는 한국의 현대 사회복지를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인철은 오늘날 종교의 사회적 공신력 정도는 그 종교가 사회복지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²⁾ 실제로

1) 이태수, “시민사회에 있어서 가톨릭 사회복지의 역할”, 제2회 종교사회 복지포럼 세미나 자료집, 2001.

1970년대 이후 외국 원조기관들의 철수와 함께 대부분의 교회는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하고 사회봉사나 구제를 위해서는 적은 예산만을 배정하는 형태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공신력을 다소 상실한 것도 사실이다. 외국 선교단체들의 도움으로 서구식 사회복지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던 종교계의 사회복지 활동도 70년대 이후에는 외원기관의 철수와 함께 한동안 부진한 면모를 보인 결과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교계는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부패,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조하거나 방만한 결과를 낳았다.³⁾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의 축복을 원하는 신도들의 수를 늘리고 교세를 확장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종교가 귀족화되고 권위적이 되어 소외계층을 오히려 더 소외시키는 사회제도로 전락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탈역사적인 성향은 의식있는 젊은층과 지식층들로 하여금 한국 종교의 장래에 대한 적잖은 우려를 낳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종교계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에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복지의 총량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조관계(partnership)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의 복잡한 사회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그 문제들이 너무 크고 복잡하다. 따라서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종교와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종교계에서 나름대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계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

2) 강인철, “가톨릭 신자들의 사회복지의식 ---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1세기 한국 가톨릭 사회복지의 전망」,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1996.

3) 최일섭,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제1회 사회복지 학술세미나, 불교복지문화연구소, 2003.

의 사회복지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해 왔고, 종교계에서도 사회복지가 본질적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나 포교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논의 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종교와 사회복지에 관한 논의는 21세기 한국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의 본래적 종교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회복지 실천은 대부분의 한국 종교가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에서 종교사회 복지는 민간복지로서 공공복지와 상호관계를 맺으며 보완적 혹은 보충적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늘어나고 다양화되는 동시에 사회복지에서 개별적인 욕구 충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종교사회복지는 공공기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사회복지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개인과 가족의 개별화된 욕구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여러 종교부문 중에서도 한국의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비판은 사회복지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개신교는 전국의 가장 기초적인 행정구역인 읍·면·동 단위에 최소 10개 이상의 교회를 갖고 있으면서도 해당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는 둔감하다는 것이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다. 실로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 운동이 1906년에 원산에서 미국의 감리교 여선교사인 매리놀즈(Mary Knowles)에 의해 시작되었고, 1920년대 감리교 선교부가 ‘태화여자관’, ‘고려여자관’을 설립하였던 초기의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대한 개신교의 관심은 많이 쇠퇴하였다는 지적이다.⁴⁾

4) 최일섭·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출판부, 1996, p.326.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사회복지 활동의 조직적 기반은 그 외형적 형태는 갖추어져 가고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질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복지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간의 유기적 관계나 협조체계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지 못하고, 사회복지 활동의 내용과 방법이 전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개신교회들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개방체계(open system)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신앙적인 안녕에 못지않게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것이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들이 얼마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회자원을 인적자원, 시설자원, 재정자원, 프로그램자원 등으로 나누어 각 자원 유형별 실태를 기존의 자료와 문헌을 통해 수집·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지역사회복지와 교회의 관계

제 1 절 지역사회복지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의 의미

지역사회복지(community welfare)란 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문 혹은 비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적, 비조직적 노력은 동서고금의 모든 형태의 지역사회에 존재하여, 흔히 '사회복지'라는 보다 일반적이고 광범한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혼동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라는 것은 개인복지나 가정복지보다 넓은 차원의 개념이며, 아동복지·청소년복지·노인복지라는 대상층 중심의 복지활동보다는 지역성(locality relevance)이 뚜렷하다는 데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개인의 문제는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자 결과일 수 있다고 주목한 것처럼 개인과 가정의 복지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지역사회의 복지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라는 것은 개인, 가정, 집단 등의 낮은 수준의 사회체계의 복지와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라는 일연속선상의 다른 극에 위치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상적인 지역사회'(ideal community)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지역사회란 어떤 상태의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만 이를 위한 노력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분야의 위대한 사상가인 린데만(Eduard Lindeman)은 그의 고전적인 저서 『지역사회』에서 이상적인 지역사회는 그 주민들에게 다음의 아홉가지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

다.1)

- ① 지역사회는 효율적인 정부라는 매개체를 통해 질서(order), 즉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 ② 지역사회는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통해 경제적 안녕, 즉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③ 지역사회는 공공의 보건기관을 통해서 육체적 안녕(physical well-being), 즉 보건과 위생을 보장해야 한다.
- ④ 지역사회는 조직적이고도 잘 마련된 놀이를 통해서 여가시간을 건설적으로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조직화된 지역사회에 의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윤리적 기준(ethical standards), 즉 도덕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지역사회는 모든 사람이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지식의 보급(intellectual diffusion), 즉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⑦ 지역사회는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free avenues of expression)을 제공해야 한다.
- ⑧ 지역사회는 모든 주민이 자기네들의 의사가 표현되고 반영된다고 느낄 수 있는 민주적 형태의 조직을 제공해야 한다.
- ⑨ 지역사회는 신앙적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의 주요제도가 맡은 바 사회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지역의 복지를 향상시키려 하는 노력은 어느 특수 전문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사업, 공중보건, 성인교육, 공공행정, 도시계획, 정신건강 등의 전문가들과 민간단체나 정치단체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수행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활동은 반드시 전문적인 활동(professional

1) Eduard C. Lindeman, *The Community*, New York : Association Press, 1921, pp.14-15.

activity)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고대사회에 있어서의 자연발생적인 민간활동(예컨대 두레, 품앗이 등)에서부터 오늘날의 민간자선활동, 지역개발운동(새마을운동이나 4H클럽 등), 그리고 전문적인 지역사회조직사업을 내포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주목한 대로 현대의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는 그 규모와 성격이 자선적이고 비조직적인 사회복지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문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최근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지역사회사업'(community social work) 또는 '지역사회 지향적인 사회사업'(community - oriented social work)은 지역사회복지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²⁾ 즉 지역사회사업이란 "개별적인 보호서비스(care services)와 지역사회개발기능 양자를 통합시킨 실천(practice)"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사업은 지역사회와 사회보호(Social care)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며 지역사회를 친밀성, 공통의 이해관계, 지리적 근접성, 우애, 직업, 서비스의 주고받음 또는 이러한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상호 연결된 사람들간의 비공식적 관계 또는 관계망(net work)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사회보호는 비공식적이고 지역사회의 관계망에 의해서나 또는 공식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어 불행에 처한 사람들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총체(the sum of helping)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사업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자원으로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사회보호를 양자 결합시킨 사회사업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2) Emilia E. Martinez - Brawley, "community",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ed. New York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1995, pp.546-547.

2. 지역사회복지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사회복지는 그 경영·실천주체의 차이에 따라 공적 사회복지와 민간 사회복지로 구별된다. 공적 사회복지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며, 민간 사회복지란 사회복지법인과 그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 수행된다.

오늘날 사회복지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즉 공공 사회복지와 민간 사회복지간의 구분은 종래와는 달리 그 명확한 구분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와 거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통적인 민간영역이 점차 국가 책임의 확장과 자체 유지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소유권은 주로 민간이 담당하지만 재정적 지원 면에서는 기관소득의 많은 부분을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상균은 사회복지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다.³⁾ 즉 ① 재정적 차원으로서 재정지원의 주체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② 사회복지 제공에 관한 결정권으로서 어느 쪽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③ 전달 체계적 차원으로서 전달의 주체가 어느 쪽이냐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복지 제공의 재원은 정부가 마련하지만 전달은 민간단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④ 서비스가 강제적이나 혹은 임의적이나 하는 것이다.

스타(Star)는 사회복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할 때 사회복지를 생산해 내는 측면과 사회복지를 소비하는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⁴⁾ 즉 전자의 경우는 사회복지를 누가 제공하느냐의 측면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사회복지를 소비할 때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다.

3) 김상균, "민간주도형 복지모형", 『사회복지연구』 제15집,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78, pp. 90-92

4) P. Star, "The Meaning of Privatization", in S. Kammerman, and A. Kahn, Privat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rinceton University, 1989, p.105

우리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것의 구체적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여기서 공공부문이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유자가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고, 재원은 정부예산에서 나오며, 그것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이다.

반면에 민간부문이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유자가 민간인(개인, 기업, 각종단체)이고, 재원이 민간인에게서 나오며, 운영도 민간인이 하고, 정부로부터의 규제도 받지 않아 정부로부터의 세제상 혜택이 없는, 즉 정부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지 않는 형태라고 규정한다.

메이요(Mayo)는 민간복지는 공공복지에 비해 비용 효과성이 높고, 덜 관료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수혜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⁵⁾

오늘날 정부는 공적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규모의 축소와 민영화를 보호적, 인적 서비스 측면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⁶⁾

1970년 후반에 몰아닥친 석유파동 이후 선진 복지 국들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화와 더불어 변화되고 있다. 수용시설 중심에서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에의 참여가 기업과 개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기업, 개인, 종교단체가 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점차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주로 정부나 기업,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에 의해 제공되던 사회복지 서비스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종교·시민단체, 영리목적의 사회복지기관등에 의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5) M. Mayo, Communities and Caring, Hampshire : Macmillan, 1994, p.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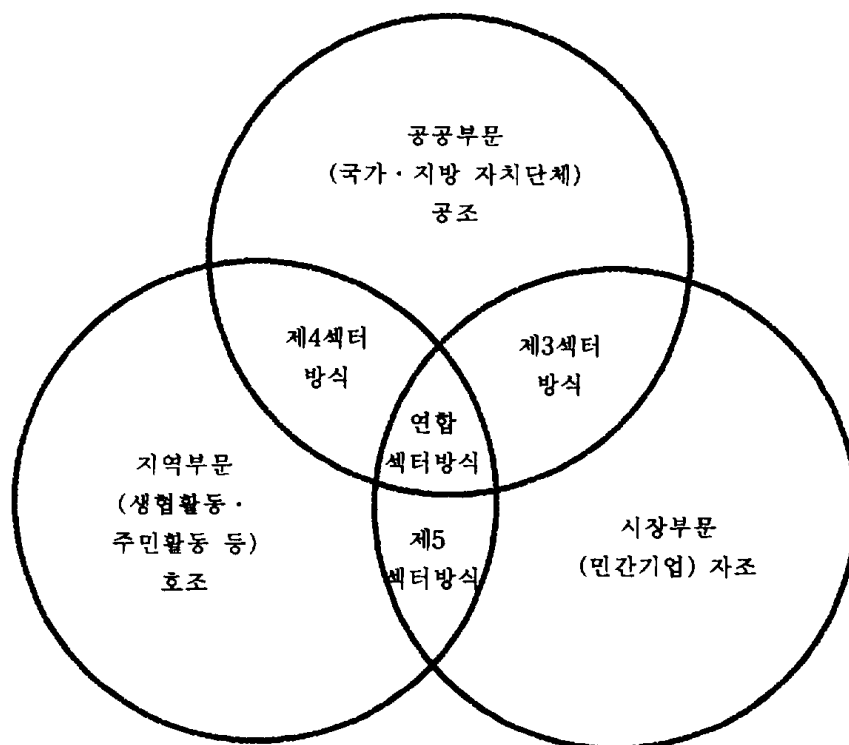
6) 백린, 『재무행정론』, 서울프레스, 1999, pp.216-218

민간자원의 활용은 민간자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창조성, 기술, 능률성 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 민간부문의 인적자본의 투입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일본의 경우 제3섹터의 설립을 주축으로 광범위한 민간자원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변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공급주체별로 <그림 2-1>에서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제1섹터는 공공부문에 의한 행정서비스에 해당하며, 제2섹터는 순수한 시장부문으로서의 방식(노인복지산업의 실버서비스)이고, 제3섹터는 공공부문인 행정서비스와 시장부문인 민간서비스가 연계한 것이다. 제4섹터는 지역의 기능집단(부녀회·청년회)등 지역의 주민, 시민단체가 연결된 공공부문과 지역부문에 의한 서비스에 해당하며, 제5섹터는 지역부문의 주민, 시민단체와 시장부문인 민간사업자의 체결에 의한 서비스에 해당한다. 그리고 연합섹터 중심은 행정, 민간사업자, 주민, 시민단체 등 관계자 모두가 일체화된 서비스에 해당된다.

<그림 2-1> 일본의 사회복지 패러다임



자료 : 川村匡由, 『現代老人福祉論』, 東京 : 栢林社, 1992, p.268.

따라서 지역사회 안에서 민간자원인 교회자원은 연합섹터 중심에서 사회통합적 기능으로 그 역할이 지대하다.

교회는 사회복지적 입장에서 보면 지역내 훌륭한 민간복지 자원이며, 지역사회는 교회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이다. 특히 한국사회처럼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회는 문제해결의 촉매자로서, 역할의 주된 제공자로서 보완적 제공자, 그리고 보충적 제공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⁷⁾

프리드랜더(W. A. Friedlander)는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균등한 기회, 사회의 연대책임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⁸⁾

이러한 이념들은 사랑을 강조하고, 나눔과 섬김을 강조하는 기독교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기독교 교회수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회적인 의존자들을 위한 원조의 대부분은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행해졌다. 그러나 6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지배적이던 기독교의 수도원은 빈민구제를 위한 중심을 이루었다.⁹⁾

오늘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전문사회복지실천은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¹⁰⁾

기독교의 교리와 가치에 입각한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이 현대 민간부문 사회복지활동의 기원이 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공적부문의 사회복지가 약화되는 시점에서 민간부문에서의 교회역할은 정부 사회복지사업의 협력자,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7) R. Kramer, *Voluntary Agencies in the Welfare Stat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81, p.235.

8) W. A. Feiedlander, *Concepts and Methods of Social Work*,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6, pp.2-6

9) 김용일·조홍식·김연옥 공저, 『사회사업실천론』, 나남출판사, 1999, p.39.

10) 정무성, “종교의 사회복지”, 『21세기 한국, 복지사회로의 도전』, 제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1999, p. 113.

제 2 절 교회의 본질과 기독교 사회복지 개념

1. 교회의 본질

갈랜드(Garland)는 교회란 사람들의 종교적 삶을 안내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조직이며, 책임과 권리의 분해에 기반한 구조, 수행할 과업, 규칙과 절차 및 규범을 가진 사회적 조직으로 이해했다.¹¹⁾

다른 사회 사업기관과는 달리 교회는 예배, 친교, 복음 전파와 같은 과업들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에 실현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사회봉사와 사회 행동은 교회 직분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¹²⁾ 사회봉사는 말과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이 몸소 실천함으로써 섬기는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은 성격상 두가지 형태로 수행되는데 하나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예배와 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흠어지는 교회'로서 사회봉사가 그 중심내용이다.¹³⁾ 여기서 흠어지는 교회가 갖는 사명은 지역사회 복지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의 제반문제에 접근하여 사회봉사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의 사명들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대립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서 모두가 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동체를 제공하는 데 그 역할과 사명이 있다.

11) Diana R. Garland, Church Social Work: An Introduction, *Church Social Work*, North 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s in Social Work, 1992, p.8.

12) D. Miles, "Church Social Work and Evangelism : Partners in Ministry", *Review and Expositor*, 1988, pp.273-283.

13) 은준관, 전제서, p.152.

2. 기독교 사회복지 개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들을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사상과 그 실천행위가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개념도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의 개념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인간 삶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통점이다. 단 기독교 사회복지가 그 사상적 근거를 종교적인 원인에서 찾는다면 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의 인간적 자유와 평등 등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인간관에 그 사상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 운영자들의 종교적 분포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역시 구제,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되어 왔다. 또한 '사회복지'라는 말의 근대적 개념인 자선, 박애, 구빈 등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회적 행위가 주로 서구 기독교에 의해 실행되어 왔다. 이렇듯 기독교와 사회복지는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관심과 개념을 가지고 왔다. 물론 현대에 들어서 사회복지의 개념이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기독교 사회복지가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사회복지가 개인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단체, 더 나아가 사회기관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면 기독교 사회복지도 일차적 구제와 봉사를 넘어서 지역사회 복지와 국가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서 역할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성서에서는 교회가 세상에 내재하면서 세상을 초월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적인 종교로서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순결하고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서 봉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영혼 구원만으로는 육체적으로 벌거벗은 자와 배

고픈 자의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없다.¹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흔히 기독교의 최고 계명 (The great commandment)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7-38)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인 사상이며 이것이 곧 기독교의 사회복지 사상의 기초가 됨을 알 수 있다.

기독교 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의 출발점은 개인과 사회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가 사회복지의 출발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의 개념을 사회복지의 기본원리를 통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한다. 기독교는 그 기본 원리를 궁극적 실재인 인간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개념은 인간고의 해소, 인간의 자기 결정권 존중, 인간의 존엄성 보장, 인간의 평등 및 기회균등의 실현,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 책임수행을 그 기본 원리로 하여 인간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며 또한 그 기본 원리는 ‘정의의 실현’이다. 이러한 기본원리를 기독교에서는 인간존재의 좀 더 궁극적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다.¹⁵⁾ 즉 궁극적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인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러한 문제를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이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을 질을 높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예수의 인간이해 즉 인간을 사랑하는 사회복지적 사

14) John M. Romanyshyn, *Social Welfare*, New York : Random House, 1971, p.18.

15) 최용병, “사회사업에 대한 신학적 고찰”, 「사회복지」 통권 88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6, p.115.

상에 입각하여 인간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행위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신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문제해결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삶의 상황을 개선 시켜주는 행위이다. 더 나아가 성서가 말하고 있는 ‘정의와 평등’을 실천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노력과 행위를 의미한다.

제 3 절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

1. 지역사회와 교회

교회는 지역사회라는 삶의 터전 위에 존재하고 있고, 지역사회는 교회가 신앙공동체로 형성되도록 기반을 제공해 준다. 또한 지역사회는 교회가 책임을 담당해야 할 구체적인 현장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은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위해 어떠한 사회적 노력을 행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물론 오늘날 한국에는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 시각으로 본다면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향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개인의 영혼구원에만 치중했고, 교회와 교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삶에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교회의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야기된 편견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그것은 교회의 개념을 ‘지역교회(local church) 또는 지역사회교회(community church)’로 정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주민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

직임을 갖게 되었다.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 이웃의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교회로 한국사회에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교회들은 교회가 있는 곳의 지역사회를 재발견하여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지역사회의 구조와 기능, 지역주민의 욕구, 지역내 소외계층의 문제 등 지역조사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이에 입각한 지역선교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실천하려는 운동이 전개되었다.”¹⁶⁾ 이와 같이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자원을 활용하는 일이기도 하다. 먼저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타주의적 박애사상을 사회에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또한 교회의 인적, 물질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뿐만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향해 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집단적 힘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첫째, 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고립과 격리를 벗어나 상호지지적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 둘째, 교회는 지역의 결함과 연속성을 증진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셋째, 교회는 지역의 신입자들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화되도록 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넷째, 교회는 재정적, 물질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신체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유지하고 지탱하도록 돕는다. 다섯째, 교회는 결혼, 장례, 출생, 성년 등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기념하는 의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여섯째, 교회는 지역의 가치관을 강화시키기도 하는 한편 비복지적인 제도와 관습에 도전하여 변화를 촉구하기도 한다.”¹⁷⁾

16) 박종삼, “지역교회와 지역사회 복지선교”,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pp.133-134.

17) 박월선,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 방안”,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9.

교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지역사회 내에서 감당하게 될 때에 지역사회는 더욱 발전하고 그 구성원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적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교회의 역할

교회는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바라 보아야할 상황이 되었다. 그것은 먼저 교회의 자원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이 무엇인지를 충실하게 조사한 후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욕구와 문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그 지역사회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형태로 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전문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내야할 것이다. 이때에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첫째, 지역교회가 지역사회 선교의 일환으로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동기가 어느 정도 강한가? 둘째, 지역교회가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적, 재정적, 시설적, 기술적 등)이 어느 정도 있는가? 셋째,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가?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되어지고 있는가?”¹⁸⁾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를 토대로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사회사업실천에 있어서 조사하고 진단하고 개입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교회와 지역사회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교회와 지역사회의 복지적 연결점을 체계적으로 진단한 후, 교회는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 교회가 가

18) 박종삼, 전계서, p.142.

지고 있는 자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분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자원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자원이다. 교회의 유형적인 복지 자원으로는 교인 수(인적자원), 성직자 수(지도자자원), 교회당 수(시설자원), 헌금 액(재정자원) 등이며, 무형적인 복지자원으로는 동기자원, 기술자원, 조직자원 등을 거론할 수 있다.”¹⁹⁾

첫째,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교회 내에는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많이 있다. 사회적으로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준전문인력, 그리고 기타의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 갖추어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적 자원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조직과 제도상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전담자를 활용하거나 지역사회 복지위원회 등을 통해 교회내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재정자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교회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헌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재정은 연간 계획에 의해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된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년 예산 중 몇%의 재정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교회마다 다 다른 형편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30%의 재정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단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교회가 7% 이하의 사회봉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구

19) 박종삼, “한국기독교와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1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88, p.137.

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예산의 범위를 늘리고 또한 재정자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회의 많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본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교회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예배실과 교육실 그리고 친교실(식당) 등을 확보하고 있다. 좀더 큰 교회로 가 보면 주차장, 선교원, 어린이집, 전용식당, 수양관, 사회봉사관 등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도 많이 있다. 이러한 시설자원을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종교적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그러한 시설을 사회적 목적으로 함께 사용한다면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재정적 절감 효과와 함께 공간확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회의 각종 조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교회는 조직체이다. 교회내에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각 조직과 기관이 있다. 그것은 연령별, 성별, 지역별, 분야별 등으로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연령적 구분에 의한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등의 조직은 그 해당 분야의 지역사회 활동에 투입할 수 있고,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는 자체의 재정과 인적 자원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 구역회나 속회 등의 조직은 해당 지역의 정보를 획득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위원회나, 전문가 집단의 모임 등을 활용하여 그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교회의 자원활용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복지활동의 기본적인 준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결국은 교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 줄 수 있다고 하겠다. 이것이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다.

제 4 절 교회의 지역사회복지사업 전개과정

19세기말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전래된 이래 한국교회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1세기동안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등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기독교는 교육, 의료, 문화, 사회복지, 남녀 차별과 신분차별을 철폐하는 계몽운동 등으로 우리 민족에게 인도주의와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크게 도입기, 계몽기, 재건기, 성장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도입기(1880 ~ 1904)

17세기 초엽 천주교가 종교로서가 아니라 서학으로 전래되었으나, 한국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온 1880년대는 우리 나라의 정치사회가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1884년 미국 선교사 알렌(Allen)이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고,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가 한국에 입국한 최초의 선교사였다. 이때의 전도 수단은 주로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이었다. 초기 개신교는 신교육사업, 의료사업, 청소년운동, 여성해방운동, 문화활동, 생활개선운동, 건강위생에 대한 계몽사업등을 주로 실시하였다.

구한말 부패한 정치 질서의 몰락과 봉건주의 경제질서의 붕괴, 그리고 가치갈등과 계급갈등으로 인한 사회적혼란과 무규범이 한국사회를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무지와미신, 빈곤과 질병, 계급차별과 성차별이 만연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신교는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²⁰⁾

20)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적 기능”, 『신학과 세계』, 1991년 봄, p.281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끼친 교회의 가장 큰 업적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 교육사업

1885년 4월 언더우드 목사는 한국에 온 직후 미국공사 푸트에게 “우리는 교육사업을 시작하고 어학을 연구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한국에 온 목적이 세속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영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교육사업가로서 미국 국기 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선교사업이 아니라 교육사업을 시작함이 어떻습니까?”²¹⁾ 이라는 글을 보냈었다. 이렇게 기독교는 처음 교육과 함께 들어왔고, 위대한 교육자로서 환영을 받아 왔다. 맨 처음 선교사들에 의한 교육의 진전은 1885년 의료선교사 알렌에 의해 세워진 왕립병원 광혜원으로 현 연세의과대학의 모체가 되었고 그 해 8월 아펜셀러에 의해 배재학당이 세워졌는데 이 학교가 근대교육에서의 자립학교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1886년 5월 30일에는 스크랜튼(M. F. Scranton)이 여자교육을 위해 정동에 여학당을 설립했는데 이 학교는 1887년 민비의 사명으로 이화학당이라 불렀다. 앞서 말한 광혜원은 최초의 의학교인 동시에 고등교육기관이었다.

그리고 평양에는 1897년 10월에 숭실이 설립되어, 1905년 9월에 발족했다. 이렇게 전국에 기독교가 세운 학교가 늘어났는데 1885년부터 1909년까지 설립된 기독교계의 사립학교가 약 39개교에 이른다.²²⁾ 이렇듯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지방과 중요도시마다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교회 옆에는 교회운영의 소학교들이 설립되어 한국 청소년의 교육의 책임을 거의 전담하였다.²³⁾

그 후 1910년 기독교계 학교는 823개교가 되었으며 이렇게 세워진 기독교

21)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4, p.234.

22) 민경배, 「한국기독교 백주년 기념사업 요람」, 1984, p.39.

23) 박 완, 전제서, p.206에서 재인용.

계 학교들은 계속되는 역사의 변화 속에서 이 나라 일꾼들을 길러냈다. 특히 현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도 기독교에서 대부분 설립하였으며, 개인 설립자중 기독교인까지 포함한다면 유아교육에 있어서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2) 의료사업

한국 선교의 문은 최초 의료선교사인 알렌(H.G.Allen)이 1884년 9월 제물포항에 세관장으로 있던 뮐렌도르프의 배려로 주한 미국공사 공의라는 명목으로 들어왔는데 그 후 알렌은 선교의 어려움을 느끼고 의사로서 의료에만 힘쓰면서 기회를 보아 오던 중 1884년 갑신정변으로 민영익과 수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었는데 민영익이 사례금으로 10만량을 내놓았다. 그러자 알렌은 한국의 병원의 시급함을 고종께 알리고 고종의 윤허를 받아 1885년 2월 25일 정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을 개설하였다.²⁴⁾ 이름은 왕립병원 광혜원이었는데 현 연세대 의대의 모체가 되었다.

감리교에서도 부녀자를 위한 병원을 1887년 10월 메타 하워드(Meta Howard) 양이 전동의 이화학당 구내에 보구여관을 세웠고²⁵⁾ 1890년 10월 셔우드(Rosetta Sherwood)가 여성을 위한 의료강습반(Medical Training Class)을 설치하였으며 북감리교 여자선교구에서는 1898년 동대문 근처에 여자전문진료소 발드윈 시약소를 개설 한국인 부녀자를 진료했고 에드몬즈(M. J. Edmunds)가 간호원 양성소를 설립²⁶⁾ 운영하였다. 1899년에 광혜원은 미국 실업가 세브란스로부터 15,000\$의 기부로 남대문 밖에 종합병원을 기축하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을 고쳤다.

이밖에도 선교사들은 의학에 관한 서적을 저술하여 한국의학계에 발전을 가져왔으며 의학도가 간호원을 양성하여 한국의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24)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p.234.

25) 민경배, 상계서, p234에서 재인용.

26) 김의환, 「교회사」, 세종문화사, 1979, p.582.

3) 구제사업

자기 중심적인 현대사회의 상황으로 볼 때 한국 개화기 기독교는 어떻게 구제사업을 전개하였나 검토하고자 한다. 기독교는 역사적 배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구제사업을 벌였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의 보호자이심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추수하(레위기29:9-10)고난 후 이삭을 굶지 말고 객이나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a pure religion)”(야고보서1:27)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성경에 기초를 두고 개화기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복음의 증거와 더불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봄으로 우리나라 구제사업에 선구자가 되었다. 당시에 구제사업을 살펴보면 처음 1886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종의 윤허를 얻어 고아원과 고아학교를 창설하였으며 1898년 여 선교사 홀(Hall)이 평양에서 여자맹인들을 데리고 복음전도와 의료선교 구제사업을 실시했는데 후일 미국 선교사 포르가 1907년에 창설한 맹아학교와 합병하였다.²⁷⁾ 그들은 우리나라 미신이 복술 맹인들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복술 위주에서 침구 위주로 전환시켜 주었다. 그 후 한국의 전인선 목사는 1946년 기독교 대전선교단내에 라이트 하우스(light house)를 설립 가난한 맹아들을 수용하여 복음과 점자 출판물로 교양교육을 1956년까지 실시했다.²⁸⁾ 이렇게 민간고아산업이 문을 연 것은 1920년 경성 고아 구제회가 독지가 김병찬의 도움으로 설립되고부터이다. 그밖에 팔목할 만한 구제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27) 박영호, 「기독교와 사회사업」, 예수교 문서선교회, 1979, p.23.

28) 상계서, p.23에서 재인용.

첫째, 홀트(Holt) 아동복지회는 미국인 해리 홀트씨가 창설 국내 아동복지사업의 50%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 입양과 국내 입양을 병행하고 있다.

둘째, 기독교 아동복지회는 1948년 미국 밀즈(Mills)박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 기관에서는 아동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쳤다.

셋째, 세계 기독교 선명회는 1950년 미국 밥 피얼스(Bob Pierce)박사에 의해 설립 사업내용은 자정과 아동의 복지 기독교교육, 전도사업, 의료사업, 문화사업 등인데 6.25때는 피난민 구호에 앞장섰다.

넷째, 한국 십자군 연맹은 1969년 9월 국제 십자군연맹 총재인 Hargis박사가 설립하여 육아원, 나환자보호, 불우학생, 장학사업, 무의탁 고아 양부모 결연사업, 극빈자구호사업 등이 있다.

다섯째, 구세군 사회사업부는 1908년 10월 허가두 정령이 들어와 개전, 사업내용은 6.25때 구호물자와 후생시설사업, 윤락여성 보호소, 미혼모 상담실,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인데 특히 해마다 세모 때면 자선남비로 불우 이웃 돕기에 있다. 위와 같이 한국의 교회는 각 국의 기독교 단체들과 더불어 구제사업을 실시해 왔다.

2. 계몽기(1905 ~1945)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끼친 영향은 크게 7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 사회계몽사업

한국교회는 사회계몽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한국 교회는 새로운 문명의 도입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 중에서 주민을 위한 계몽운동을 교회조직을 통해 실시했는데, 그 중 중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맹 퇴치사업이다. 한글번역 성서 및 기독교 서적간행 활동은 문맹 퇴치와 한글 보급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나아가 일제의 압제와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한글을 가르쳐 민중들에게 민족의식의 자각과 독립정신, 평등사상 등을 심어주게 되어 선교적 차원을 넘어 민족의 개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의식주 생활의식 개혁에 대한 계몽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새로운 문명의 도입으로 인한 혼란기에 주민생활에 있어 위생적이고 합리적 생활을 도모해 나갔다.

1928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에서 채택된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목적은 “육아, 식량, 위생시설 및 여자와 어린이들의 생활에 수용되는 모든 것 즉, 이 모든 것에 필요한 지식을 통하여 가정생활을 개선하는데 있다.”²⁹⁾고 밝히고 생활개선 사업은 기독교 선교의 한 방편임을 밝혔다.

셋째, 농촌 계몽운동사업으로 1920년 북장로교 선교회에서는 농촌계몽운동을 펼쳤고, 숭실전문학교에 농과를 설치하여 농촌지도자를 양성하였다.

또한 농촌계몽운동은 1920년 말부터 1930년 초까지 청년단체인 YMCA, YWCA와 장로교 및 감리교 선교부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1929년 농촌사역위원회가 결성되어 농민을 위한 농업에 관한 기술을 가르쳤고 전국에 세미나 개최를 통해 운동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계속적인 압박으로 1937년에 농촌계몽운동은 폐지되고 말았다.

넷째, 기독교 사회관을 통한 사업이다. 처음 기독교사회관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 영적, 정신적 및 육체적 발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점차 기독교적이며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습득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봉건적인 사회제도 하에서 여성의 위치를 정립하고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 모자보건

29) P. Abrecht, *The Churches and Rapid Change*, 정하은 역, 대한기독교서회, 1967, p.256.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관 사업은 1906년 원산에 설립된 보혜여자관이 그 효시였으며 이어서 춘인여자관(1910), 서울 태화사회관(1921), 개성고려여자관(1922), 철원여자관(1922), 전성중앙회관(1923), 원주여자관(1930) 등이 설립되었다.³⁰⁾

2) 구나사업

1904년 한국 연합선교회에서 문둥병 환자를 처음으로 조사·착수하였다.

1909년 선교사 윌슨(R.M. Wilson)과 포시스(H.W. Forsythe)에 의해 광주에 서 나환자를 위한 구나복지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광주 나병원이 설립되어 1925년에 여수 애양원으로 발전하였다. 1925년까지 치료환자수는 4,260명에 달하였다.³¹⁾

3) 구제사업

한국교회가 이룩한 일 가운데 중요한 지역사회 복지사업이 구제사업이다. 과거로부터 빈부의 격차가 심했던 이 사회에서 불우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던 기관은 교회이다. 특히 구세군 교회가 주동이 되어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제사업을 전개했다.

1919년 송택수, 김병찬, 김태화 등이 서울에 고아원을 개설하였다. 이듬해에 윤치호 등 교회지도자들이 고아 구제회를 조직하고 고아원을 확장했다. 1921년 평양에 1925년 선천에 각각 고아원이 개설되었고, 1923년에는 서울에 구세군에서 남녀육아원을 개설하였다.

1928년 12월에는 한국 최초의 자선냄비가 등장하였다. 자선냄비로 모금된 것은 절인들을 위하여 쓰여졌다. 또한 접대소를 설치하여 매일 100여명의 절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³²⁾ 1939년 호주장로회에서 빈민들을 위해 빈민협

30) 박영복, 『한국기독교 사회교육사』, 세종문화사, 1994, p.362

31) 유홍열, 『한국문화사대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0, pp.664~665

32) 장형일, 『한국구세군사』, 구세군대한본령, 1975, p.109

동조합을 운영하였다.

4) 교육 및 문화사업

한국교회는 1910년부터 일제의 통치에 의하여 사회개발이 방해를 받았고 기독교 계통 학교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1905년에는 일본의 우민정책으로 5천여개 학교가 계속 감소되거나 폐교되어 문맹률이 전국민의 90%에 달했다. 그러나 1923년 한국교회는 여름·겨울 성경학교와 야간학교를 개설하여 문맹을 퇴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14년 전국의 주일학교 수는 2,392개교에 학생은 119,496명이었다. 당시 주일학교에서는 성경, 한글교육, 노래, 동화, 성극, 체육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사회교육을 실시했다.³³⁾

또한 1929년에는 권세열 목사가 평양시 광문서점 2층에서 극빈자 6명의 거지를 모아 성경구락부를 조직하여 문맹퇴치에 앞장섰다. 성경구락부의 학생수는 1931년대에는 1,500명, 1936년경에는 5,600명에 달했다.³⁴⁾

5) 의료사업

1904년 남대문 밖에 최초의 종합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이 세워졌고, 이것이 세브란스 즉, 연세대 의과대학의 시작이었다. 선교사들에 의한 의료사업은 주로 의학 교과서 저술, 의사의 양성 및 간호원 양성등 세부분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공주시에서는 해마다 약1,000명의 어린이들 가운데 돌을 맞기도 전에 사망하는 영아 사망률이 약40%에 달하자, 이를 위해 베이비 클리닉(baby clinic)을 만들어 어린이들의 질병과 건강의 관리는 물론, 어린이를 위한 상담 및 치료에까지 힘쓰게 되었다.³⁵⁾

이밖에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우유공급, 간호학교, 직장 졸업과정 등의 공

33) 박영복, 전계서, pp.258~259

34) 권세열, 『지도요강』, 대한청소년 성경구락부, 1955, p.7

35) 강혜영,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사업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p.7

중보건과 아동복지를 위해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하였다.³⁶⁾

6) 맹 · 농아사업

1903년 평양에 홀(Hall)여사에 의해 맹인 여학교가 개설되었고, 1909년에는 농아부를 설치하여 맹아학교로 발전하였다.

그밖에 1910년 맹인전도사 백사겸의 활동, 1926년 숭동교회 내의 맹인전도반, 1935년 이창호 목사와 한글 점자를 혁신시킨 박두성의 활동 등이 있었다.³⁷⁾

1928년 홀(Hall)부인에 의하여 해주에 개설된 폐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구세요양 병원은 하산요양원과 함께 한국의 수많은 폐결핵 환자들을 절망에서 구출하였다.³⁸⁾

7) 부녀복지사업

1919년 선교사 헌터 웰즈(Hunter Wells)박사 부인인 룰라 웰즈(Lula Wells)에 의해 이혼녀, 불우여성을 위한 부녀복지사업이 실시되었으며, 특히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에 많은 비중과 관심을 두면서 활동해온 남감리교회의 경우 막대한 선교부의 지원을 얻어 최초로 한국여성복지사업이 전개되었다.³⁹⁾

1921년 여성문맹자들을 위한 문맹퇴치 및 미신타파교육, 위생강연 등 여성계몽과 어린이 건강을 위해 종로에 태화여자관이라는 사회복지관이 설립되어 여성해방과 자각, 민족의식의 양양,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⁴⁰⁾

또한 1926년 호주 장로회 선교부와 한국 구세군의 협조로 서울 “소녀의 집”을 운영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행하여졌는데, 1919년 독지가 김주용이 행랑방 제도에 의한 인권침해에 격분하여 보린회를 조직함으로 시작

36) 장병욱, 『한국감리교 여성사(1885~1945)』, 성광문화사, 1979, pp.402~406

37) 유홍열 외, 전계서, p.663

38) 상계서 p.665

39)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1997, p.242

40) 태화기독교사회관, 『태화기독교사회관 50년사』, 태화기독교사회관 발행, 1971, p.52

된 빈민구제사업과 음주, 도박, 흡연, 매춘문제 등에 대한 사회악 쇄신운동 등이 그 예이다.

이 외의 사업으로 1920년대에 알콜중독이 한국사회의 문제로 제기되자 한국교회는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절제운동을 펼쳐나갔고, 1927년에는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아편과 금주운동 등 절제운동을 전개했다.

그후 한국교회는 1938년 신사참배 강요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본의 탄압이 극에 달해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거나 변질되는 고통을 겪었다.⁴¹⁾ 이로 인해 사회적 선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한국교회는 종말론 지향적, 말세 지향적, 내세 지향적 성격에 집착하게 되었고 교회는 사회에 무감각해져 일종의 안식처나 도피처로 변모하고 말았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예언자적이고 사회적인 사제적 기능을 상실하면서 점차 개인 구원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회적 관심과 역사 의식은 흐려지게 되었다.⁴²⁾

3. 재건기(1946 ~ 1989)

1945년 해방은 한국기독교의 해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일제식민지시대에 신사참배에 반대해 온 순교자 외에 투옥되었던 많은 목회자들이 석방된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미군정 통치시기에 교회가 사회구호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부족하였고, 대부분 교회들이 교리와 신앙 노선을 정립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1945년에는 부산 진교회에서 경남 재건노회가 조직이 되어 교회 재건운동이 일어났고, 1946년에도 서울 승동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부총회를 조직하여 교회 재건운동을 시작하였다.⁴³⁾ 또한 1948년에는 한국교회에 선교와 사회봉

41) 곽안전, 『한국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73, p.8

42) 이원규, 전개서, pp.282~285

43) 김장대, 『기독교 사회복지학』, 도서출판 진흥, 1998, p.75

사활동을 위해 KNCC(한국기독교협의회) 내에 구제위원회를 신설하였고, 홀트 아동복지회, 기독교 아동복지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1950년대는 6·25전쟁 이후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사업 활동이 매우 부족하였다. 대부분 교회들이 자체 성장에 치중하였고, 전쟁 이후로 많은 교회와 부속건물, 병원, 기타의 시설들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6·25 직후 미국에서 들어온 기독교 세계봉사회의 봉사활동과 기독교단체 기관들의 전후 부상자 치료와 구제활동이 있었다. 참혹한 전쟁의 고통 속에 1950년 7월 3일 한국기독교 구제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기독교 전쟁 구호협회가 1951년 피난민의 식생활 해결을 위하여 결성되었다.⁴⁴⁾

아울러 20,000명의 기독교인과 1,000여명의 목사들이 제주도과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 도움을 주었다. 이외의 구제 프로그램으로 고아원, 모자원, 재활 프로그램, 결핵프로젝트와 나환자 사업이 1950년대에 진행되었고, 특히 1959년에는 학생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고아원이나 가정에 방치된 수천명의 어린이들에게 성경과 한글을 가르쳤다.

또한 1959년에 북장로교 선교사 아담 부인이 연세의료원에 소아 재활원을 개설함으로써 처음으로 지체부자유아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같은 해에 기독교 세계봉사회는 식료품 22,949,154파운드, 의류 827,504파운드 등을 배급했다.⁴⁵⁾

이외에도 1952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로 영적 각성운동과 성결교의 복음화운동, 미국의 빌리그래함 목사 특별집회, 1953년 감리교 선교의 해, 1954년 장로교와 감리교의선교 및 전도행사, 1955년 피엘스 목사의 대규모 집회, 1956년 빌리그래함 목사의 영적 집회로 교회의 성정을 자극하였다.

1960년대는 은사집회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또한 한국교회는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고통 당하는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각종 사회복지사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963년에 한국의 NCC

44) 최무열,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나눔의 집 출판사, 1999, p.103

45) 곽안전, 전거서, p.223

가 한국기독교 봉사회를 조직하였고, 1964년에는 유재춘 목사의 간질병 환자들을 위한 장미회가 조직되었다. 아울러 서울 소재 정동교회가 빈민촌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선교를 시작하였다.

1967년도에 전국 고아원은 593개소였는데 그 중 약 77.2%에 해당하는 458개소와 전체 고아원 수용 아동수 70,959명 중 82.1%에 달하는 58,192명이 한국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수용되었고, 모자보호시설은 23개소, 양로원 시설 23개소, 장애인 시설 7개소와 외국에서 국내자선기관을 원조하는 기관도 41개소에 이르며 이 시기에 기독교 계통의 병원들이 전국에 설립되었다.⁴⁶⁾ 이외에도 YMCA, YWCA 등 청년단체에서 교육, 그룹활동, 계몽집회, 상담,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개척자적 선구역할을 해 온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이 외부원조의 감소로 인해 교단이나 교회로 계승되지 않고 개개인의 관리 또는 사회단체로 이양되는 등 한국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이 약화되었다.

1970년대는 한국경제의 성장에 따라 교회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수직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지만 많은 재정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사회봉사에 무관심하여 비판을 받아왔다. 1971년에는 신구교 합동 성서번역판인 공동번역을 완성하였다.

1970년대 교회성장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73년의 미국 빌리 그레함 목사의 전도집회, 1974년의 엑스플로 집회, 1977년의 복음화대성회 등의 대규모 전도집회였는데,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⁴⁷⁾ 또한 1970년대는 각종 선교단체들의 활동과 설립으로 복음전도를 위한 대규모 집회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시기였다.⁴⁸⁾

1970년도 초부터는 교회가 산업선교를 통해서 노동문제에 개입하고 1971년

46)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관계자료집』, 1967, p.93

47) 최무열, 전계서, p.124

48) 이 시기에 각종 선교단체들로는 JOY, UBF, CCC, 네비게이토, YFC, SFC 등의 선교단체들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맹렬한 활동을 하였다.

도시산업 선교회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초기 도시빈민 선교운동은 억눌리고 소외된 도시빈민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다. 1977년도 한국교회가 방글라데시에 의료봉사단을 최초로 파견하였다.

1980년대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억압통치가 진행되던 기간이었으나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다.

신학교 교육은 한국교회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1983년까지는 한국에 80개의 신학교가 있었고, 1985년까지 신학교 졸업자는 10,000명에 달했다. 기독교연합신문은 1989년 2월까지 1만 5000명이 있었음을 보도하고있다.⁴⁹⁾

한국교회는 여러 분야에서 성장을 하였으나 1987년을 고비로 교회성장 추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에 시국에 관한 사회개혁선언문이 총신대생 중심으로 발표되고, 1981년에는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가 남북대화를 촉구했으며, 1982년에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 기공과 1983년 통일 찬송가가 발행됐고, 1984년은 한국기독교백주년 선교대회와 YMCA의 가족법 개정건의, 1986년은 남북한 통일을 위한 결의문 채택, 1987년은 세계선교보고대회, 1988년은 교회여성연합회의 매춘반대운동 전개, '88 올림픽 기념 세계 스포츠 선교대회를 거행했으며, 1989년은 미스바 대각성 성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 기독교 선교100주년, 구교 선교 200주년을 맞으며 구제사업이 국내 중심에서 국외로, 선교의 영역을 넓혀 갔다. 아프리카의 기아, 특히 이디오피아의 살인적인 굶주림은 한국 기독교로 하여금 '받았던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로서의 역사적 구제사업을 펼치게 했다.

또한 1980년대는 한국교회가 보유한 인적, 시설, 재정자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시기였다.

한 예로 1980년 순복음교회에서는 사회사업선교회를 발족하여 1,000여명의 회원 36개 선교실을 설립하고, ① 불우청소년과 청소년 가장 학비등 보조 ② 보육원, 정박아, 지체장애인 수용시설 ③ 불우한 부녀자의선교와 자립갱생지원

49) 김연택, 『한국 종교와 교회성장』, 대한신학대학원 출판부, 1998, pp.252~253

④ 양로원, 결식노인 후원 ⑤ 무의탁 출소자 자립갱생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⁵⁰⁾

1981년에 시작된 서울의 도림교회의 경우 지역사회개발 교육원을 중심으로 소외된 주민과 낙후된 지역에 지역사회선교와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유아원, 장학회, 신용협동조합, 노인학교, 경로식당, 한글학교, 무료진료, 헌혈, 시민교육, 지역신문, 도서관, 공부방, 지역사회학교 등을 실시하였다.⁵¹⁾

4. 성장기(1990 ~ 현재)

1990년대 이전은 한국교회가 물질적 축복과 기복신앙, 수적 성장에 치우쳐서 교회의 흐름이 개교회주의나 대교회주의로 흘러갔다. 이로 인해 교회의 외적 성장은 엄청났으나 질적성장은 부족했다. 그러나 1990년대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위한 활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1990년에 미스바 대각성금식기도회가 있었으며, 남북한 통일 공동예배가 있었고, 공산권 성경보내기 운동본부가 발족하였다. 1993년에는 소말리아에 사랑의 쌀을 전달하였으며, 표준새번역 성경이 출간되었고, 남북한 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와 엑스플로 '93. 청소년 선교대회, 사형제도 폐지운동 등이 일어났다. 1994년에는 UR재협상 요구 개방압력 철회운동과 이단사이비 공동대처운동이 펼쳐졌으며, 1995년에는 기독교 TV방송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성장속에 교회자원을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교회들이 늘어났다. 1992년 12월 예수교 장로회 덕수교회는 230평 대지 위에 연건평 470평의 지역사회 복지관을 설립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학교, 주부교실, 청소년공부방, 상담실, 청소년 문화센터, 장학회, 생활협동사업(농어촌 생산품 직거래, 알뜰시장운영, 재활용품 수집판매 등), 의무실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⁵²⁾

50) 순복음 사회사업 선교회, 『1998년 제18차 정기총회』, 1998, p.7

51) 유의웅 편저,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5, p.2

1996년 정동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회교육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한바 있다. 첫째, 아동복지사업으로 시설아동 방문 지원사업과 불우아동 여름캠프, 농어촌 탁아소 지원 장난감 모으기 운동과 둘째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청소년 영상교실과 청소년 음악제, 상담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 지역사회복지 사업으로 레크리에이션대학, 정동쉼터운영, 환경운동전개, 한글교실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넷째,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대학, 극빈노인 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광림교회의 경우도 독특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로 의료사회복지를 통한 무의촌지역 진료활동과 호스피스 교육과 봉사활동과 군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사업으로 양로원을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례식장 대여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장례식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장례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⁵³⁾

이러한 현상을 통해 볼 때, 한국교회는 1990년대부터 성숙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룩한 양적 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하기 시작했으며, 각 교회들의 질적 성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물질적 축복과 기복신앙을 반성하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과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나아가 교회가 주변 사회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이웃 사랑에 대해 관심갖기 시작했다.

약자에 대한 자선이나 구제책 등의 이전 방식만이 아닌 변화되는 사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보다 많은 재정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의 변화를 사회가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앞으로 더욱 적극적 개입으로 지역사회복지와 교회자원이 보다 과학적이며 세분화되어 전개하여야 한다고 본다.

52) 유의웅, “교회와 지역사회봉사”, 『교회사회봉사총람』, 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p.301.

53) 장재승,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pp.40~42

제 3 장 교회자원의 유형별 평가

일반적으로 자원(resource)이라 함은 사회복지대상자인 개인, 가족,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수단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에서는 흔히 '서비스'라는 것으로 표현된다. 자원 혹은 서비스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유형자원과 무형자원, 혹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등과 같이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정부(공공)자원과 민간자원처럼 제공자의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이 수혜자에게 권리로서 주어질 수도 있고, 제공자 측의 선의(*good will*)에 의해 제공될 수도 있다.

제 1 절 인적자원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자원 활용유형을 크게 인적자원, 시설자원 재정자원 프로그램지원 등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자원이란 교회 내부의 다양한 교인들을 의미하며,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주로 교인 및 사회복지 전문가, 자원봉사자, 기타 지도자 등이 포함된다. 교회의 인적자원은 좁은 의미에서 인력(*manpower*)과 동의어로 쓰이지만 단순히 경제적 생산적 요소로서의 노동력뿐 아니라 지적 능력이나 가치관의 개발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쓰인다.

교회는 이웃사랑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령계층의 봉사인력이 있다. 특히 목회자나 지도자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고, 그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기독교 계통 대학 및 신학대학교에서는 사회복지학과 및 사회사업학과가 계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앞으로 평신도뿐 아니라 사회복지분야의 교회지도자들은 전문적 이론과 기술을 갖추고 지역사회 복지에 체계적 전문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¹⁾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의 현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외형적 현황이요, 다른 하나는 불가시적인 무형적 현황이다. 전자는 전국적인 교회수, 교인수, 재정규모 등의 조직 내지 교세에 관한 것이요, 후자는 교회내부의 문제로서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교회의 실정 등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교회의 교인수를 보면 1930년에 37만 2천명, 1965년에는 75만명으로 전인구의 3.4%에 불과하였다. 그 후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전반기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 매년 100만명의 신도가 증가했다. 실제로 한국의 교회수는 1960년의 5,011개에서 1990년 35,869개로 30년 동안 61.5%나 증가했고, 교인수에 있어서도 1960년의 623,072명에서 1990년의 10,312,813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555%나 증가하였다.²⁾

또한 1998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 약 4천6백만명 중 기독교 교인은 약970만명이고,³⁾ 전국적인 교회수는 46,603개소이며, 성직자는 5만 1천 8백 9명으로 집계되었다.⁴⁾

더욱이 우리나라 전체 교회 교세현황을 보면 교인 증가율이 1990년에는 5.8%, 1991년 3.9%, 1992년 0.6%로 집계돼 크게 둔화되었고, 1995년도는 정체되면서 1997년도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8년도에는 IMF로 인하여 교인들이 다수 증가추세를 보였다.

199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교단소속 2,004개 교회를 대상으로 한국 교회내 인적자원인 교인들의 사회봉사실천에 대한 인식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달에 1회이상 교회밖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1) 1998년 8월 11일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은 대학의 모든 학과에서 사회복지 관련과목 14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원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교회성장론에 대한 임상적 평가”, 『목회와신학』, 서울: 두란노, 1993, p.41

3) '98 한국갤럽조사보고서, 『한국개신교인의 교회활동과 신앙의식』, 두란노, 1999, p.153.

4)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1997, p.312. : 서울시, 『서울시 통계연보』, 1998, p. 547.

하는 교인이 한명이라도 있는 교회가 36%, 한명도 없는 교회가 52%였다.⁵⁾ 이는 상당수 교인들이 사회봉사에 대한 잠재력을 지닌 자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을 위한 동기부여와 사회봉사 의식제고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교인들의 호응도를 <표 3-1>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각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는 시행했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교인들의 호응도를 보면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3.2%,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6.1%로 나타났다.

<표 3-1>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교인들의 호응도

(단위 : 명, %)

	목회자	전도사	장로	권사,집사	합계
1.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33	5	15	21	74
	(6.3)	(3.8)	(6.6)	(6.5)	(6.1)
2. 관심과 호의를 보이는 정도이다.	239	73	103	153	568
	(45.6)	(55.7)	(45.0)	(47.1)	(47.0)
3. 필요할 때 헌금 및 자원 봉사자로 참여한다.	238	48	48	138	528
	(45.4)	(36.6)	(36.6)	(42.5)	(43.7)
4. 내일처럼 발벗고 나선다	14	5	5	13	39
	(2.7)	(3.8)	(3.8)	(4.0)	(3.2)
합 계	524 (43.3)	131 (10.8)	131 (10.8)	325 (26.9)	1,209 (100.0)

자료 : 한국자원봉사 능력개발연구회, 「한국교회 사회봉사사업 조산연구」, 성광문화사, 1993, p.26.

비교적 적극적인 경우가 43.7%, 비교적 소극적인 경우가 47.0%로 나타나고

5) 황을호, “한국 농촌에서의 교회중심 지역사회개발 가능성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p.26

있어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교회 직
분별 교인들의 상태를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목회자들이 사회봉
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표 3-2>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2>에서 볼 때 목회자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회의 책임
인식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 및 개입범위에 대
해 목회자들은 산업사회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목적을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본 견해는 27.6%,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의 하나로 보는 견해는 60.2%로 나
타나 대다수의 목회자가 사회봉사가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교회의 부수적인 사
업보다는 선교, 교육의 기능 등 교회의 필수적인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3-2>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단위 : 빈도, %)

	구 분	빈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회의 책임 인식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51	14.8
	상당히 책임이 있다	192	55.8
	다소 책임이 있다	96	27.9
	별로 책임이 없다	3	0.9
	전혀 책임이 없다	0	0.0
	합 계	342	99.1
산업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개입범위에 대한 인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106	30.8
	어느정도 개입해야 한다	201	58.4
	확실한 입장을 취하기가 어렵다	24	7.0
	가급적 개입하 않아야 한다	10	2.9
	전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0	0.0
	합 계	341	99.1
사회봉사활동 목적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95	27.6
	주변의 불쌍한 이웃을 돕기 위해	24	7.0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9	2.6
	교회의 본질적 사명 중의 하나	207	60.2
	합 계	335	97.4
사회봉사활동 범위	교인을 위한 구제사업까지	16	4.7
	불우이웃돕기, 자선, 긴급구호 등 단순 구제사업까지	59	17.2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 (탁아소, 노인학교)	96	27.9
	전문적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복지관등) 의 설리 및 운영까지	59	17.2
	문제의 근원을 찾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사회 운동까지	109	31.7
	합 계	339	98.5

자료 : 김만두, “한국개신교와 사회복지서비스”, 전주한일신학대 개교70주년
기독교 사회복지 학술심포지움, 1993, p.139

사회봉사활동의 범위에 있어서도 개교회 교인에게 한정하여 구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4.7%에 불과한 것에 비해, 사회운동으로까지 보는 견해는 31.7%로 목회자들이 사회봉사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은 <표 3-3>에 잘 나타나 있다.

<표 3-3> 목회자의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

(단위 : 수, %)

	구 분	빈도	%
사회봉사 관련 설교 횟수	거의 매주 한다	10	2.9
	한달에 한번 이상	108	31.4
	한, 두달에 한번	147	42.7
	일년에 3 ~ 4회	70	20.3
	일년에 1 ~ 2회	7	2.0
	합 계	342	99.4
자원봉사 권장정도	매우 권장하고 있다	70	20.3
	약간 권장하고 있다	171	49.7
	그저 그렇다	45	13.1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46	13.4
	전혀 권장하지 않는다	7	2.0
	합 계	339	98.5
전문사회복지 교육이수	있 다	75	21.8
	없 다	264	76.7
	합 계	339	98.5
사회복지 기관과의 관계	적극적으로 맺고 있다	30	8.7
	상당히 맺고 있다	24	7.0
	대단한 관계는 아니다	21	6.1
	단편적으로 맺고 있다	163	47.4
	전혀 관계가 없다	80	23.3
	합 계	318	92.4

자료 : 김만두, “한국개신교와 사회복지서비스”, 전주한일신학대 개교70주년
기독교 사회복지 학술심포지움, 1993, p.139

<표 3-3>을 살펴보면, 사회봉사에 대한 설교를 한 두달에 한번하는 목회자가 전체응답자의 42.7%로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사회복지 기관과 단편적인 관계만을 맺고 있다는 목회자들이 47.4%로서 가장 많고, 전혀 관계가 없는 목회자도 23.3%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목회자들의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과 실제활동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원봉사에 대한 권장도 약간 정도이며, 전문 사회복지 교육도 대부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봉사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경우 목회자, 교인 전체의 의식수준이 낮고, 사회복지 전담직원이 교회 내에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교회사회 복지사업의 전문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 2 절 시설자원

시설자원이란 교회내의 모든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자원을 말하며 교회에 배당과 부속시설등을 의미한다. 시설자원은 우선 그 교회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시설자원을 파악한 다음 이를 지역사회복지 개발사업에 어떻게 어떤 순위에 입각해서 사용·개발되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내 교인의 공통적인 욕구를기초로 하여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또한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의 효과적 결합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직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의 결합과 조직이 지역사회복지 개발 사업 수행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계산하여 최대한으로 그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조직화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 적재적소에 위치하고 있고, 교회의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속기관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다.

교회 시설에는 주로 교회 예배당, 교육관, 사무실, 식당, 회의실, 주차장 등이 있으며,부속기관으로는 선교원, 유치원, 선교센터, 어린이집, 놀이방, 공부방, 사회교육원, 경로당, 무료식당, 장애인 시설, 기타 등이 있다.

이러한 교회시설들은 지역사회복지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잘 활용하고 주변의 지역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활용한다면 더없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 산하 계통에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분야는 <표 3-4>에서와 같이 대체로 네 가지 분야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제일 많은 시설은 아동복지시설로서 253개이고, 노인복지시설이 48개, 장애인복지시설은 48개, 부녀복지시설은 16개로 총 344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계통 사회복지시설이 일부분에 편중되어 있고 다양한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기독교 계통 사회복지 시설현황

(단위 : 개소)

아동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합계
253	16	48	48	344

자료 : 임구원,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교회역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57

우리나라 교회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중요한 시설자원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교회는 크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예배당 외에도 교육관, 사무실, 식당, 회의실, 주차장 등을 보유하고 있고, 선교센터, 유치원, 선교원, 사회교육관 등의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

다. 교회의 시설자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5>와 같다.

<표 3-5> 교회의 시설자원

(단위 : 개)

	대학	전문대	신학대학 및 신학교	중·고교	병원 의료기관	간행물	사사 기관	출판 보도기관
개신교	9	12	39	70	13	25	불확실	26
가톨릭	11		-	66	56	12	93	불확실
계	32		39	136	69	37	불확실	불확실

주 : 몰몬교, 전도관, 통일교, 여호와증인은 제외
자료 : 교육부, 『한국종교편람』, 1992, p.139.

<표 3-5>에 의하면 교회당 이외의 시설자원인 교육, 병원의료, 출판, 기타 시설들은 지역사회 복지센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소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1980년대 이후 교회의 급격한 성장으로 교회 건축 및 시설 확충을 위해 막대한 경비를 지출해 온 결과 넓은 공간과 쾌적하고 유용한 시설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자원들이 지역사회 복지센터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시설자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부대시설이 없는 영세한 교회도 많이 있으며, 교회 건물조차도 없는 교회와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 구체적으로 교회가 부대시설을 가지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표 3-6> 교회 부대시설 실태

(단위 : %)

구분	전용 교육관	교육사회봉사 접용관	사회봉사 접용관	수양관	묘지	기타	없음
비율	37.7	12.3	1.9	2.2	9.2	6.6	48.1

주 : 1,022개 교회들 가운데 복수선택한 경우도 있음.
자료 : 김동배, “교회사회사업실태”, 『교회사회봉사총람』,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1992, p.338.

<표 3-6>에서 부대시설의 용도별 내용을 볼 때, 교회가 전용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37.7%, 교회묘지시설이 9.2%, 그리고 수양관이 2.2%를 가지고 있어 그 동안 한국교회가 선교, 교육, 봉사 중에서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 교육관, 교회묘지, 수양관 등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사회봉사 겸용관과 사회봉사 전용관을 합쳐 약 15%에 가까운 교회들이 사회봉사의 목적을 위한 시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회가 사회봉사사업을 실시하고 계획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이 교회의 재정문제 40.2%, 교회시설 및 공간부족 17.6%, 지식과 기술부족 15.8%, 교인들의 소극성이 9.2%, 당회 및 제직회 등의 소극화가 5.8%로 나타났고, 어려움이 없다는 의견이 7.6%로 조사되었다.

<표 3-7> 사회봉사사업 실시상 또는 계획상 어려움

(단위 : 수, %)

구 분	응답자수(%)
교회재정상 사회봉사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적다	470(40.2)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	195(15.8)
교회시설 및 공간이 부족하다	217(17.6)
교인들이 호응이 부족하다	42(3.4)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적다	24(1.9)
관공서 등에서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17(1.4)
당회 또는 제직회가 사회봉사사업에 대해 소극적이다	72(5.8)
기타	2(0.2)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94(7.6)
계	1,160(100.0)

자료 : 한국자원봉사 능력개발연구회, 전거서, p.136

이처럼 한국교회가 사회봉사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정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교회가 마치 교회 자체만을 운영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17.6%가 교회의 시설공간의 부족을 들고 있어 기존교회 건물에 대해 충분한 시설활용을 하지 않고 교회를 개방하는 데도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재정자원

재정자원이란 교회의 본래적인 기능인 선교, 교육, 봉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량의 재물·재화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자원을 말한다. 주로 교회의 십일조, 헌물, 기타 헌금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재정자원은 주로 교회내에 존재하는 재정자원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사회복지개발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역할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구와 자원을 유기적으로 조직화 하는 것이며,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능률향상에 큰 기여를 한다.

교회의 재정규모는 교회의 크기와 수에 비례하여 확대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국교회의 재정수입 근거는 교인들의 헌금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한 사람의 1년 헌금액수의 평균은 소형 교회는 약523만원, 중형교회는 약 504만원, 대형교회는 약508만원, 초대형 교회는 약412만원이고 전체평균은 약 509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다른 종교에 비해 물질적 재정수준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한국교회의 연간 예산의 총액을 잠정적으로 추정하면 실제 헌금할 수 있는 성인 교인수를 500만명으로 보고 그 수에 51만원을 곱하면 약2조 5,500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재산과 수입현황을 구체적으로 재단법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3-8>과 같다.

우리나라 교회의 재산과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94개 있는데 토지와 건물 합해서 총 재산은 약 1천7백억원 정도이며, 연간 수입은 약 5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8> 교회의 재산과 수입현황

(단위: 평, 천만원)

단 체 별	재 산 현 황			연간수입 (천만원)
	토지(천)	건물(천)	평가(천만원)	
재단법인(79)	13,453,000평	1,212,000평	163,346,000	49,144,000
사단법인(15)	248,000평	11,000평	7,216,000	2,981,000
합 계(94)	13,702,000평	1,223,000평	170,563,000	52,125,000

자료 : 중앙일보, 1991. 11. 24.

또한 1인당 헌금액수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연간예산의 총액을 잠정적으로 추정하면 한국교회의 실제 성인남녀 교인 총수를 500만명으로 추산할 때 그 수에 평균 1년 헌금액이 51만원을 곱한다면 약 2조 5,500억원 정도가 한국교회의 1년 전체 예산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한국교회가 연간 사회봉사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표 3-9>와 같다.

우리나라 교회들의 연간 사회봉사비 지출은 전국 2,000여개 교회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본 재정에서 구제 및 사회봉사비의 명목으로 1년간 지출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가 78.9%로 나타났고, 1천만원이 넘는 교회들은 7.9%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종합해 볼 때, 한국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이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알 수 있다. 물론 사회봉사비 지출이 많은 교회는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교회수와 교인수를 볼 때는 극히 미진하다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 한국교회들이 교회운영에 자체의 재정지출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연간 사회봉사비 지출 비율

(단위: 개소, %)

연간 사회봉사비 지출액	빈 도	비 율
50만원 이하	600	29.9
51 - 100만원	298	14.8
101 - 500만원	553	27.5
501 - 1,000만원	134	6.7
1,001 - 1억원	150	7.5
1억원 이상	8	0.4
무 응 답	265	13.2
계	2008	100.0

자료 : 김동배, “교회 사회봉사사업 실태”, 『교회사회봉사 총람』, 1992, p.343.

한국교회 예산의 주요 부문별 지출분포 현황을 <표 3-10>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회 재정은 교회예산 지출이 교회의 성격상, 교단 노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재정지출을 하는 부분은 교역자 생활비로 평균 20.65%이며, 그 다음으로는 교회 유지비 17.13%, 건물 건축 및 시설확장 16.16%, 선교비 15.06%, 사회봉사비 9.07% 등이다.

<표 3-10> 한국교회의 예산의 주요 부문별 지출분포 현황

(단위: %)

용 도	건물건축 및 시설확장	선 교	예배 및 설교	이웃돕기 및 사회봉사	교역자 생활비	교육 및 문화사업	교회 유지비
지출 비율	16.16	15.06	10.20	9.07	20.65	11.28	17.13

자료 : 한국자원봉사 능력개발연구회, 『한국교회 봉사사업조사 연구』, 성광문화사, 1993, p.116.

대부분 교회유지 및 인건비로 교회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며 반면, 교육 및 문화사업과 사회봉사 등의 분야는 지출 순위의 하위에 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

나 향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교회가 주로 교회 자체의 유지와 확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의 사회봉사사업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교회의 사회봉사예산은 1983년에는 2.3%에서 1991년에는 7.82%, 그리고 1997년에는 9.74%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1997년 1월 18일 제4회 기독교 사회복지 학술세미나에서 김기원은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 사회복지”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교회는 현재 교회 예산의 평균 9.74%를 사회봉사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994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조사한 연간 사회봉사비 지출실태를 <표 3-11>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1>에서 연간 사회봉사비가 전체교회 2,008개 중 대다수 교회가 5% 이하로 사회봉사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10%는 24.2%, 20%이상이 2.5% 정도 지출하는 교회로 나타났다.

<표 3-11> 연간 사회봉사비 지출실태

(단위: 수, %)

연간 사회봉사비 지출비율	교 회 수 (%)
1.0% 이하	146 (7.3)
1.1 - 5.0 %	863 (43.0)
5.1 - 10.0 %	488 (24.2)
10.1 - 20.0 %	195 (9.7)
20.1 - 50.0 %	46 (2.3)
50.1% 이상	4 (0.2)
무 응 답	266 (13.2)
계	2,008 (100)

자료 :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교회사회봉사총람』,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p.1377.

따라서 한국교회의 연간 사회봉사비 지출이 전체 교회 재정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회예산 지출항목의 지역별 실태를 <표 3-12>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예산 지출항목을 분석해 보면, 교역자생활비 38.45%, 교회관리비 24.04%, 교육사업비 16.76%, 선교사업비 15.50%, 기타 등으로 나타내고, 특히 지출항목이 가장 많은 교역자 생활비를 보면 대도시보다 영세한 지역으로 갈수록 지출비율이 높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회가 사회봉사비 지출보다는 교회 자체 유지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12> 교회예산 지출항목의 지역별 실태

(단위: %)

	사 업 비 율				
	상회비	교육사업비	교역자생활비	선교사업비	교회관리비
대 도시	4.40	19.07	34.86	16.41	25.46
중·소도시	6.33	18.54	35.40	18.12	21.61
농 촌	6.28	11.76	46.41	12.24	24.31
전 체	5.25	16.76	38.45	15.50	24.04

자료 : 우진환, “기독교 사회복지사상과 한국교회의 역할에 관한 일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49.

구체적으로 한국교회의 주요 부문별 지출실태를 살펴보면 <표 3-13>과 같다.

<표 3-13>을 살펴보면 교회가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은 교역자 생활비가 20.6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교회 유지비 17.13%, 건물 건축 및 시설 확장 16.16%, 선교사업 15.06%, 교육 및 문화사업 11.28%, 예배 및 설교 10.20% 그리고 사회봉사비가 9.07%로 가장 적게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주로 교회자체의 유지와 확장에 거의 비중을 두고 있으며, 반면에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사업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표 3-13> 주요 부문별 지출 비율의 백분율 분포

(단위: %)

사회봉사비지출분포 용도	0-10%	10-20%	20-30%	30%이상	평 균	순 위
건물건축 및 시설확장	49.9	25.7	14.4	9.9	16.16	3
선 교	47.0	39.6	10.2	3.1	15.06	4
예배 및 설교	73.3	21.2	4.9	0.7	10.20	6
이웃돕기 및 사회봉사	82.0	15.9	1.8	0.3	9.07	7
교역자 생활비	28.4	37.7	21.6	12.3	20.65	1
교육 및 문화사업	64.9	29.9	5.2	-	11.28	5
교회 유지비	42.5	34.6	15.3	7.6	17.13	2

주 : 표본수 = 944

자료 :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전게서, p.116.

제 4 절 프로그램자원

프로그램자원이란 지역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자원을 말한다.

교회의 프로그램자원의 구성은 지역사회복지 개발사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며, 각종자원의 질서 있는 동원과 배분 그리고 활용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성격의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활용보다 전도와 선교의 효과와 수익성을 고려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회의 대부분 주요한 프로그램 대상범주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및 지역사회주민으로 나누어지는데,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의 유형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어린이집 및 선교원, 아동보호시설 방문 및 지원, 유치원, 탁아사업, 놀이터 및 놀이방, 아동보호시설운영, 아동양육을 위한 강좌개설, 입양 및 위탁부모 결연 사업 등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장학사업,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청소년 상담, 독서실 운영, 청소년 선도, 불우청소년 캠프, 취업알선, 청소년 성교육, 직업훈련, 학교폭력 예방활동, 야학운영, 기숙사 운영 등으로 나누어진다.

셋째,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양로원 방문 및 지원, 노력봉사, 불우노인을 위한 식사제공, 노인대학, 노인문제 상담, 경로당 운영, 노인취업 및 부업알선, 임종 노인봉사 등으로 나누어진다.

넷째, 장애인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은 주로 시설방문 및 지원사업, 노력봉사, 차량지원, 장애인 가정상담, 취업알선 및 훈련, 수술비지원, 장애인 복지캠페인, 사회재활 적응훈련, 수용보호 시설운영, 점자 테이프 보급지원 등으로 나누어진다.

다섯째, 지역사회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회 시설개방, 소년소녀가장 지원, 수재민 이재민 지원, 가정문제 상담, 농산물 공동수매 및 직판, 노동상담, 무의촌 봉사 및 법률상담, 무의탁자 및 실업자를 위한 무료식사 제공, 신용협동조합, 진료활동, 취업알선 및 훈련, 환경교육, 등·하교길 교통정리, 미혼모 시설운영, 학교폭력 및 약물남용 예방활동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외에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이 대부분 한국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한국 교회는 지역에 따라 자원유형이 다르긴 하나 그 자원 면에서 볼 때, 조직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가장 잘 갖추어진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조직은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위해 가장 훌륭한 조직체이다. 따라서 교회내의 교육과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전문적인 개발 여부는 교회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성공적 수행여부를 좌우한다.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표 3-14>와 같다.

<표 3-14>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사업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노인 학교	무료 급식	양로원 및 요양원	교회 노년 부	보육 원	탁아 방	공부 방	지체 장애 교회 및 시설	정신 장애 시설	각종 교회 및 시설	청년 교회 및 기관	여성 교회 및 기관	성인 교회 및 기관	농촌 단체	성인 교회 및 기관	장학 관	의료 봉사	기 타
	43	2	23	6	33	33	55	15	7	13	9	14	1	3	2	7	13	

자료 : 대한예수장로회총회, 「교회 지역사회 봉사실태」,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pp.296~317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사업이 주로 노인 및 어린이 교육 등에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그 지역특성에 맞게 교인 및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선교적 차원에서 교회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최근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표 3-15>와 같이 실직자들을 위해 지원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표 3-15>에 나타난 현황을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 32개소, 기독교 장로회 9개소, 구세군 9개소, 감리교 6개소, 대한성공회 5개소로 총 61개소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으며, 봉사의 특징을 보면 무료급식, 쉼터운영, 구직알선, 노숙자 잠자리, 가정보호상담, 취업안내, 숙식 및 음료제공,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표 3-15> 교회의 실직자 지원 사회봉사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회	구세군	감리교	대한 성공회
61	32	9	9	6	5
사회 봉사 특징	희망의 쉼터 기독교 인력은행 무료급식 노숙자 잠자리	무료급식 취업알선 실직장애인 무료 급식, 쉼터 운영 노숙자 숙박	쉼터운영 구직알선 식사 및 음료제공	가정보호상담 쉼터운영 취업안내 숙식제공 무료급식	무료급식

자료 : 중앙일보, 1998. 6. 22.

한국교회가 사회봉사사업에 대한 교회의 재정지출이 적다는 사실과 교회의 사회봉사사업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일시적이고 구호적인 성격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순수한 사회봉사 보다는 전도의 효과만을 고려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사회봉사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회의 사회복지 사업의 프로그램의 대상범주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다섯부분으로 구분했는데,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지역사회 봉사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실천여부를 살펴보면 <표 3-16>과 같다.

<표3-16> 지역사회 봉사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실천여부

대상범주	주요 프로그램(%)
아 동	아동보호시설운영 (고아원, 영아원) 12.2%, 탁아사업 8.3%, 아동보호시설 방문 및 지원 35.1%, 유아원, 유치원 운영 28.9%, 어린이 선교원 29.7%, 아동교육을 위한 강좌개설 11.5%, 놀이터 17.8%, 입양 및 위탁부모 결연사업 4.9%, 기타 4.5%
청 소 년	장학사업 54.4%, 야학운영 4.9%, 독서실운영 17.5%, 불우청소년 캠프 5.5%, 취업알선 11.5%, 직업훈련 11.7%, 청소년 상담 37.1%, 청소년 선도 19.7%, 기타 2.9%
노 인	시설운영사업(양로원) 2.4%, 경로당운영 2.2%, 노인대학 9.5%, 양로원방문 및 지원 51.9%, 노인취업 및 부업알선 4.3%, 노인문제상담 15.2%, 불우노인을 위한 식사제공 29.4%, 임종노인 호스피스 10.2%, 노력봉사 18.8%, 기타 2.8%
장 애 인	수용보호시설운영 2.3%, 시설방문 및 지원 47.0%, 취업알선 및 훈련 5.1%, 장애인 가정상담 13.1%, 사회재활교육 3.1%, 보장구지원 4.1%, 수술비 지원 12.0%, 점자도서지원 3.4%, 기타 1.3%
지역사회 주민	교회시설개방 41.5%, 노동상담 8.4%, 농산물공동구매 7.1%, 신용협동조합 4.0%, 법률상담 3.8%, 진료활동 9.7%, 소년소녀 가장지원 31.7%, 가정문제 상담실 운영 9.9%, 수재민, 이재민구호 70.3%, 미혼모수용보호시설운영 1.8%, 무의촌 봉사 10.8%, 동네소독 및 방역 2.7%, 동네청소 21.9%, 등하교길 교통정리 7.9%, 무료식사제공 11.8%, 기타 4%

주 : 795교회 1,2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자료 :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 연구회, 전게서, pp.120~125.

<표 3-16>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로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시설 방문 및 지원이 35.1%로 제일 많고, 어린이 선교원 29.7%, 유치원운영 28.9%, 놀이터 17.8%, 아동보호시설 운영사업이 12.2%, 아동교육을 위한 강좌 개설이 11.5%, 탁아사업 8.3%, 입양 및 위탁부모 결속사업 4.9%순이었다. <표3-16>에서 보듯이 교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보호시설 방문 및 지원 같은 단순 구제사업의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 어린이 선교원이나 유치원 운영 프로그램은 유료 봉사 혹은 선교의 이중 목적을 띤 프로그램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가 산업사회에서 야기되는 각종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이웃돕기 차원의 단순한 수준에서 사회봉사를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정문제 등 사회문제의 예방적 측면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는 장학사업이 54.4%, 청소년 상담 37.1%, 선도 19.7%, 독서실운영 17.5%, 취업알선 11.5%, 불우 청소년 캠프 5.5%, 야학운영이 4.9%순으로 나타났음을 보아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 비행문제를 교회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청소년 상담 및 선도 프로그램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기능까지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시킬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는 양로원 방문 및 지원이 51.9%, 불우노인을 위한 식사제공이 29.4%, 빨래 및 청소 등 노력봉사가 18.8%, 노인문제 상담이 1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호스피스 10.2%가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두고 볼 때 아직도 양로원 방문이나 지원등의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프로그램이 선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는 시설방문 및 지원 47%, 노력봉사 13.4%, 장애인 가정상담 13.1%, 수술비 지원 12%, 장애인 복지 캠페인 7.4%, 취업알선 및 훈련 5.1%, 점자도서 지원 3.4%로 나타나는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시설방문 및 지원이며, 그 외의 부분은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천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교회의 사회복지봉사사업이 비교적 단순하거나 선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보다 도움을 받아야 할 욕구를 많이 느끼고 있는 집단에 대한 전문적인 봉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섯째로,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기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는 미혼모 수용, 보호 등의 모자복지 분야, 가정문제상담 등의 가족복지분야, 진료활동 등의 의료복지분야와 기타 긴급 재해구조, 신용협동조합 등의 분야가 있다.

소년소녀 가장 지원이 31.7%, 무료식사제공 11.8%, 가정문제 상담실 운영이 9.9%이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 지원 프로그램은 31.7%가 실시하고 있는 반면 미혼모 수용, 보호시설 운영에는 1.8%만이 실시하고 있어 이 분야가 프로그램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혼모 문제에 대한 사회의 도덕성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또 다른 조사를 통해 교회들이 실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태를 <표 3-17>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빈곤가족 지원 (77.3%), 불우이웃돕기(79.4), 장학금 지급(64.0%), 사회복지시설방문 및 지원(63.77)과 같이 일시적이고 구호적 성격을 띤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은 그 실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비교적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료봉사 프로그램의 실시율이 7.8%인 반면에 교회내의 인력으로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야간학교 운영 (3.8%)이나 호스피스 프로그램(2.0%)에서는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시율을 보

이고 있어 교회의 인적 자원 활용상의 문제점이 엿보인다. 교도소 방문(32.8%)과 같은 전도 목적이 강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들보다도 실시율이 높다는 점은 대외 활동이 아직도 전도사업 중심적임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199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³⁾ 총회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아동복지 사업(선교원, 유치원)이 46.3%, 지역사회복지사업(신용협동조합, 경로잔치, 양로원, 요양원 등)이 15.6%, 청소년 복지사업(공부방)이 9.9%로 조사되었다.

<표 3-17> 교회들이 실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단위 : 수, %)

프로그램종류	빈도수	%	순위
빈곤가족 지원	226	77.3	2
수재민돕기, 불우이웃돕기	273	79.4	1
무료 유아원, 탁아소 운영	32	9.3	9
장학급 지급	220	64.0	3
노인대학 운영	21	6.1	12
지역사회를 위한 독서실 운영	24	7.0	11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방문 및 지원	219	63.7	4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학교 운영	13	3.8	14
의료 봉사팀 운영	27	7.8	10
장애인 지원사업	93	27.0	6
탁아소 및 경로당 지원 사업	88	25.6	7
교도소 방문	113	32.8	5
호스피스	7	2.0	15
사회봉사를 위한 교육사업	45	13.1	8
기타	21	6.1	12

자료: 성규탁외, 「한국교회 사회복지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 문화 연구소, 1991, p.16.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회가 아동복지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지

3) 김창섭, “한국교회의 지역사회참조 방안연구”, 서울신학대 석사학위논문, 1997, p.38.

역사회복지 분야의 사업내용도 너무 단조로우며,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 5 절 문제점

선행되어진 많은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회의 책임, 교회사회복지활동의 교회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전도 또는 선교와 같은 우선순위의 인정, 사회복지활동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서 인식, 산업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개입,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예산의 확충 등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목회자의 의식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사회복지에 대한 목회자들의 참여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사회복지활동을 주제로하는 설교 횟수, 교인들을 향한 자원봉사의 권면정도,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을 위한 노력,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목회자의 참여정도 등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목회자의 의지는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목회자의 의식 실천이 일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점은 이러한 의식과 실천의 불일치가 최소한 10년전의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도 교회가 사회봉사에 대한 잠재력을 지닌 자원에 불과함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당수의 신도들이 사회봉사가 교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다라고 생각하고, 사회봉사를 신앙의 본질과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교리적인 성격을 띠는 보수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교회의 신학에 대한 올바른 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보다 더 앞서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하는 목회자들 역시 의식은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의 자원을 살펴보면 그 어떤 기관이나 조직 보다는 유리하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대부분 인적이나 재정적 자원의 부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실상 많은 연구 조사들의 결과를 보면 자원의 부족이 교회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활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교회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자원으로 인적자원을 들 수 있는데 최근 한 연구에서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교인들의 호응도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3.2%에 불과하고 나머지 96.8%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달에 1회이상 교회밖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교인이 한명이라도 있는 교회가 36%인 반면에 한명도 없는 교회가 52%나 되었다. 이는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의식부족의 문제, 의식고취와 동기부여를 위한 교육의 부재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인적자원 다음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시설자원이다. 선행되어진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교회가 약 50%정도 되고 나머지 50%의 교회는 아무런 부대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독립된 시설과 공간을 갖추어 사회복지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교회계통사회복지 시설이 일부분에 편중되어 있고 다양한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정자원을 봤을 때 교회가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은 교역자 생활비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교회유지비, 건물, 건축 및 시설확장, 선교사업, 교육 및 문화사업, 예배 및 설교 그리고 사회봉사비가 가장 적게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주로 교회자체의 유지와 확장에 거의 비중을 두고 있으며, 반면에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사업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개교회의 재정상태의 차이가 극히 심하여 부한교회와 극빈한 교회의 구

분이 명확하고 지역적으로도 편차가 심해 효과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제는 많은 교회의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대한 연구보다는 각종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높은 의식과 풍부한 자원들을 잘 활용하도록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 4 장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교회자원 활용방안

제 1 절 지역사회와 교회간 관계정립

교회와 사회는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쿨만(O. Culman)은 바깥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교회의 구원의 역사 자체가운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했다.¹⁾ 또한 스타트(J.R.W Stott)는 교회의 사회참여가 복음주의적인 유산이라고 말한다. ²⁾ 교회에서 말하는 사회봉사는 개인과 지역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인간복지를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³⁾ 교회가 이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복지를 다루는 제법, 프로그램, 임금, 서비스 체계등 내용이 사회복지적 개념과 지역사회의 가족 및 집단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돕는 사회사업적 개념 모두를 포괄한 기술과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에 접근해야 한다.⁴⁾

기독교는 개개인이 모여 조직된 공동체적인 종교다. 모든 개체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고, 사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다. 교회가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실시할 때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미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개인의 영혼구원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문제에 개입하여 해결

1) 小林公一, 『기독교교육』, 엄문용 역, 보이스사, 1984, p.138

2) John R. W. Scott,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p.15

3) 교회와 사회관계에 관한 옥스퍼드 보고서에서는 교회의 첫째 의무는 세상에 대한 봉사이며, 그리스도의 뜻을 지상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참여, 사랑과 봉사, 교제 속에서 그와의 연합이라고 했다.

김영철, "세계교회협의회와 에큐메니칼윤리사상", 『장신논단』, 제14집, 장로회신학대학교, 1998, p.266

4) Walter A. Friedlander and Robert Z. Apte,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Fifth Edition, Engli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80, p.4

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 헤셀(Dieter T. Hessel)은 이원론적인 목회방식을 극복할 것을 언급했다. 즉, 영적인 발달과 사회정의를 행하는 것 사이를 분리하는 것, 신앙의 개인적인 면과 집합적인 면을 분할하는 것, 교회를 양육하는 것과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행동을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⁵⁾

그러므로 교회가 지역사회복지에 발전적 관계를 갖는데 필요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회와 지역사회의 복지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 체계 안에서는 지역단위로 복지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가용자원 동원과 효율적인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 등에 대한 계획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고 민간인 교회가 주도할 수 있는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복지협력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구축을 위해 필요한 일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정부와 교회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협력·조정한다. 둘째 중앙·지방정부의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중복되는 것을 조정한다. 셋째, 지역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민간자원을 개발하고 서비스 대상자 자원봉사자 배치훈련 등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거시체계에서는 초교파 교회협의회와 중앙정부간에 사회복지의 기본정책에서 민간자원 동원과 정부의 인적·물적 자원의 기본계획을 협의한다.

중간체계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내에 위치한 교회와의 협력구축이다. 실제로 이 체계에서 지방 정부의 복지프로그램과 예산에 따라 교회자원의 협력과 배치를 협의한다. 특히 사회자원의 중복투입으로 자원낭비를 막고 정보교환을 통해 유대를 강화시킨다.

5) Dieter T. Hessel, *Social Ministry*, revised edition, Louisville:Westminster, John Knox Press,1992, p.8

미시체계는 사회복지정책이 실제 시행되는 시설과 프로그램 실시현장을 말한다. 사회사업 실천현장은 위에서 말한 거시체계와 미시체계에서 결정된 계획의 실천장이다. 이곳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효율성이 나타난다. 사회복지 전문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그 지역실정에 적절한가 등을 평가하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⁶⁾

교회와 지역사회복지 협력체계구축은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서비스를 막고 과잉공급되는 자원을 조절하기 위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적 서비스로 정부가 지역마다 보육시설을 법적규정을 통해 설치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교회가 선교원, 이라는 이름으로 미인가 시설이 운영되는 경우 불필요한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교회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연계와 협조, 조정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다양화되며, 주체간에 갈등이 야기되므로 이를 조정, 통제할 수 있는 협의체 구축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개교회는 정보화 시대에 맞게 서비스 구축망을 설치하고, 공공기간의 욕구와 정보, 소비자의 욕구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교회 자원의 적절한 사용과 서비스의 다양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서 정보망 구축과 운용은 필수적이다.

6) 최근 사회복지시설은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미시적 차원(개인, 집단, 가족)과 거시적 차원(조직, 지역사회)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거시적 차원에서 개입을 행하는 사회복지사는 자주 “정책실천”이라고 불리우는 일에 관여하는데, 이는 정책의 변화가 조직이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중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거시적 실천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하는 전문적 역할은 계획가, 정책분석가, 프로그램개발자, 지역사회 조직가, 매니저, 행정가이다.

N. F. Kettner & S. McMurtry., *Social Work Macro Practice*, New York : Longman, 1997, p.6.

2. 교회시설의 지역사회 센터화

교회는 지역사회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교회는 인적, 물적, 재정적 시설자원을 언제나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풍부한 사회자원이다. 지역사회가 요청할 때 교회는 조직체를 통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적시에 투입할 수 있다. 또 교회는 교육관 등 제반 부대시설을 지역 사회시설로 제공함으로써 일반 민간시설이 담당하기 어려운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상당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딜릭(Dillick)은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해 근린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을 참여시켜 그들이 처해있는 환경을 변화 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말하고 있다.⁷⁾

사회복지관의 목표는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①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②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며, ③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⁸⁾

사회복지관은 본질적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및 조직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프로그램 기능에 따라 가족복지, 재가복지, 지역복지로 재편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관을 정부의 협조아래 시설을 설치하고 교회가 운영하도록 지원하면 가장 효율적인 지역사회 종합복지 서비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諸 자원의 조직화

지방정부시대에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향상하려는 움직임과

7) Sidney Dillick, "The Functions of Neighborhood Organization," in Ernest B. Harper and Athurunham(eds) *Community Organizaion in Action : Basic Literature and Critical Comments*, New York : Association Press, 1959, p.323

8)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 1995, p.123

시민적 요구는 교회의 여러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조직화 하느냐와 관계가 있다.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제 교회는 다원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전 사회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갖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목회자 자신이 사회복지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전 교인들을 봉사자로 훈련시 교회자원 투입에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사회과학적 방법과 기술을 터득한 사회복지사를 활용하거나 신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했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교역자를 배치하는 길이다. 이들을 통해 교회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공공재원과 교회재원의 효율적인 투입방안 등이 전문적으로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관심은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제고에 달려있다.

제 2 절 교회자원의 유형별 활성화방안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게 되면서부터 도시와 농촌 각 지역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즉 산업구조가 농업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다시 서비스와 전문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인구는 자연히 농촌에서 도시로 집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 소속의식,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으나 그에 따른 역기능이 분출했다.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들은 소외되었고, 자기중심적 사고는 이혼과 가정불화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가출이나 소년비행, 소년범죄 등의 청소년 범죄들이 증가되었고 특히 절도, 강도, 강간과 같은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다.⁹⁾

한국사회는 정보화사회로 바뀌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처해있다. 정보화사회는 산업사회와는 달리 복지·문화·여가·정보분야에 비중이 커지는 사회이다. 산업사회는 경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표준화, 집권화, 거대화 등의 사회조직 원

9) 이원규, "변동사회와 교회의 책임",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성서연구사, 1993, pp.73~74.

리에서 관리되는 사회라면 정보화 사회는 사회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다원화, 분산화, 분권화 등의 새로운 사회조직 원리에 의해 재조직되는 사회이다.

21세기는 분명히 20세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도시화는 공동체성과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올 것이며, 핵가족화의 확산과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청소년 문제, 가족해체 문제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물질적 풍요는 정신적 공허와 소외감을 초래할 것이고, 절대적 빈곤은 감소되겠으나 상대적 빈곤은 심화될 것이다. 과학기술 만능주의는 비인간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나 공공기관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간부문인 교회의 사회복지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 시설자원, 프로그램자원은 민간부분의 어느 조직체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자원을 지역사회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교회구성원의 사회봉사 의식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교회는 전통적으로 개인구원을 강조해 왔다. 개인구원은 단순히 예수믿고 천당가는 신앙으로 고착되었고 축복을 개인에게 주는 선물로 간주하고 이웃사랑이 배제된 집단이기적 왜곡된 신앙이 팽배해왔다. 실제로 교회구성원이나 목회자들의 의식에서 지역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나 실천적 의식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교회의 제도개선문제이다 큰 교단을 제외한 군소교단에는 사회복지를 위한 위원회나 정책을 입안할 기구가 없다. 오늘날 교회는 제도적인 교회(institutional church)에서 기능적인 교회(functional church)로 쇄신이 필요하다.¹⁰⁾

셋째, 지역사회와 교회의 역할분담 문제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자

10) H. Seifert, *The Church in Community Action*. New York : Abingdon-Cokebury, 1952, p.262.

원을 활용해서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우선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지역에 위치한 지역사회자원인 교회가 적극 동참하도록 지방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상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공공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복지와 교회자원의 활성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인적자원

교회가 지니고 있는 자원 중에 가장 큰 자원이 인적자원일 것이다. 이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신학, 신앙, 사회과학적 지식 등과 관계된다.

대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교회가 지역봉사가 미흡하다는 견해지만, 교회는 동기만 부여되면 적극적으로 봉사에 임하겠다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교인 전체를 지역사회 인적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력자원 활용을 위해

첫째, 전교인 사회봉사화 운동을 전개해야한다. 교회는 선교, 봉사, 친교, 교육이 조화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교회에 모인 전교인은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¹¹⁾

11) 자원봉사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가치규범의 상실, 사회공동체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킬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자기실현 및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전 국민의 50%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약3천 7백만명이 종교단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에 이런저런 형태로 연간 2백 40억 시간을 봉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50%가 기독교인이다.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은 20세기초 기독교의 영향 아래 교회들을 중심으로

둘째, 교회 목회자는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회와 성직자는 중요한 지역사회 자원이자 사회사업 실천의 행동체계 일부다. 미국인들은 사회복지서비스기관보다 교회조직과 빈번히 접촉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교회가 중요한 지지원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사회 서비스 기관보다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성직자는 사회기관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¹²⁾

이러한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서도 신학교의 교육과정에 사회복지과목을 편성시키고 다양한 연수를 통해 사회봉사의식 개발과 지역주민과 상담할 기술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아직도 신학교에서는 사회봉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¹³⁾ 특히 각 교단별 신학교에서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 전문지식을 함양해야 한다. 대형교회에서는 사회목사(Social Ministry)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회목사는 사회복지학교육과 신학교육훈련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회자로서 교회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사회목사는 일반교인들의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지도와 훈련, 자원활동, 모금운동, 사회복지계획과 실천 등을 담당하여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전문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교회에 교회사회복지사를 둔다. 교회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일정한 신앙경력을 갖춘자를 말한다.

교회는 지방자치, 민간자원의 역할분담, 복지형태의 복잡성, 전문성, 복지행정, 인사관리 등의 복잡성 때문에 훈련받은 복지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내의 인적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이뤄졌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편, 『미국의 자원봉사 유래와 현황』, 서울:동인, 1997

12) F. M. Coewenberg, *Religion and Social Work Practice in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132

13) 이영갑, “예창(통합)의 사회봉사현황과 과제”, 『교회사회봉사총괄』, 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p.48

이 교회사회복지사 제도를 확립하는 길이다.

2. 시설자원

교회가 보유한 자원중에 중요한 부분이 교회의 시설이다. 그 외 어린이집시설, 농산물 공동수매, 신용협동조합 등 장소로 개방하고 있다. 대체로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시설을 개방하고 그때마다 사회문제에 대응해 왔다. 도립장로교회의 경우 1955년 초등성경구락부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1981년에 지역사회개발원을 설립하여 어린이집, 청소년학교, 노인학교, 한글학교, 경건절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시설활용에는 몇가지 제안이 따른다.

첫째, 모든 교회 건물은 지역사회에 개방한다.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 있다는 것은 지역민이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인접성이 있다. 이웃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교회건물은 지역사회복지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둘째, 교회의 시설은 공공부분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한다. 오늘날 사회 서비스의 근원은 거의 종교적인 조직에서 출발했다. 특히 교회는 사회사업의 출발이자 사회사업실천의 주요 실천세탕으로서 인식되고 있다.¹⁵⁾

처음 교회는 장애인, 나그네, 병든자를 보호하고, 재우고, 입히고, 먹여주었다. 공공부분이 할 수 있는 시설은 과감히 정리하고 공적부분에서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한 부분을 교회가 술선하여 시설을 활용토록 해야 한다.

셋째, 교회시설 활용의 지역사회 복지체계와의 연계이다. 교회 건물의 활용을 교회 자체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가져야 한다. 위급한 재난시 교회가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거 개방되는 것과 같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체계내에서 즉시

14) 유의웅 편저, 『한국교회와 사회선교』, 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pp.246~300

15) D.R. Garland, op. cit., p.475.

사용할 수 있는 연계가 필요하다.

3. 재정자원

모든 종교기관의 헌금은 원래 교회의 신자와 그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복지 재원인데 이것이 제대로 사회에 환원되지 못하고 있고, 종교기관과 신자가 많지만 종교사회사업은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¹⁶⁾

오늘날 한국교회는 경제적 성장과정에서 중산층 교회, 브르조아적 교회, 자본주의적 교회로서 물질적 특권을 누리다 보니 물질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예언자적 전통을 상실하게 되었고 교인들은 경제적 윤리, 사회적 책임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된다.¹⁷⁾ 이를 지양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섬김'과 '나눔'이다.(마태복음 20장) 기독교의 근본교리가 사랑이므로 이웃사랑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재정은 선교비와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¹⁸⁾

둘째, 사회봉사비 예산확보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예산확보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지 않고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접근으로 예산확보 계획을 세워 모금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집중 지원한다. 반드시 예배 처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역복지를 활성화하라는 것은 교회의 예배적 기능을 무시한다는 비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작은 교회, 교회재정이 예배 기능만 유지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봉사에 관심만 갖고 있다면 지역 내에 시설을 임대해서 장애인, 노인 등을 돌볼 수도 있다. 한 개 교회가 특성화된 한 개 복지사업을 집중지원하고, 개교회가

16) 김영모, 『한국사회복지의 제문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6, p.9.

17) 손규태, "교회사에 나타난 경제사상", 『신학이해』, 제7집, 호남신학대학교, 1997, p.192.

18) 또다른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평균예산지출은 교회관련비 24%, 교역자 생활비

연합하여 특수한 시설을 공동관리한다면 교회 본래 기능의 하나인 사회봉사 기능이 회복될 것이다.

4. 프로그램자원

대부분의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욕구에 따르지 못하고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일시적이고 구어적인 성격의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교회기구내에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교회가 전문 사회복지사를 두지 못하는 경우 교인 내에 복지사나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복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계획·실천·확인·평가하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기구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역할 분담과 프로그램 중복을 중재한다. 특히 지역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한다.

교회사회복지는 지역사회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교회신축, 개축시 특화된 복지시설을 계획한다. 사회복지관은 기독교적 사상과 저소득층 주민의 인류애적 사랑의 동기로 시작되었다. 정부가 공공재원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관이 서민층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교회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프로그램내용과 재원을 정부와 공동개발해서 교회기능상, 인적, 물적, 시설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교회내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많이생기고 있다. 지역내 소외계층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과 같은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¹⁹⁾

셋째,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센터가 되는 프로그램을 창출해야 지금까지 교

19) 70년대에 한국교회는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붐이 일어났었다. 그러나 90년대에 와서 사회봉사관을 건축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교회가 급증하고 있다.

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관성 내지는 구제사업 등에서 지역사회 전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올바른 문화적 경험을 위해 기독교 문화의 장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있어야 하고 장애인, 노인을 위한 특수시설운동을 계획 실시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사회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실천의 장소이다. 지역민이 당하고 있는 정신적 고통, 빈곤, 환경, 교육, 문화 등의 문제를 갖고 교회에 찾아올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품안에 오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사랑의 프로그램 창출이 지속되어야 한다.

제 5 장 결 론

한국교회의 성장은 교회 내적으로는 예배와 선교 및 교육 등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밖의 사회적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대와 때로는 비판적인 시선을 모으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외적 성장은 이룩하였으나,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으며 교회 본래의 사명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지역 사회 속에 설립된 교회는 결코 소속된 지역사회와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웃을 외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회는 교회 자체의 성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일부교단과 교회 외에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개입하거나 봉사는 외면해 왔다. 또한 21세기에 필요한 지역사회복지 전략을 수립하면서 정보화 시대를 맞아 목회자의 역할과 교회의 갱신이 필요한 이때에 한국교회가 전개할 수 있는 조직 자원 면에서 볼 때 교회만큼 조직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잘 조직된 사회기관도 없다.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구역조직은 곧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흩어져 나갈 강력한 기능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 교회는 종교적 목적이라는 특정 관심사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자원적 결사체로 사회에 어느 단체 혹은 기관보다도 조직체계를 잘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회의 자원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신교는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재정, 인력, 공간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복지 수준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합으로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국방비와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의 과다지출로 인해 국가경제력에 비해 매우 빈약한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복지투자가 절실히 요청되

지만 민간자원의 동원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사회복지 활동에의 투자는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종교성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교회는 무한한 인적자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선진국 국민들의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 수준에 이르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최근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를 계기로 자원봉사 참여율이 급속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미국 기독교인의 경우 70%이상이 적어도 1주일에 1시간 이상 교회 밖에서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도 신앙을 바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가진 각종 재능의 소유자가 교회에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사회봉사를 실천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이나 기술을 모르는 신자들을 위해 사회봉사 세미나나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이들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주로 주말에만 이용되는 교회의 시설들을 주중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해 개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주 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도입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여가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세속적인 향락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한 대안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으로 남는 여가시간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선용하고자 하는 교인들이 많은 만큼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만큼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조직은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가능한 대상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독교 최일선 조직인 지교회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지역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조직화,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교회들이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내의 종교단체간 혹은 전문사회복지 기관과의 협동적 노력이 필요하다. 연합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의 종교간에 구체적인 정보 및 자료의 교환을 가능케 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이나 단절을 피할 수 있게하여 사회복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다양화되면서 각 민간 주체들 간의 역할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별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제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시급하다. 즉 사회복지기관과 교회,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사회복지 부문의 연계망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 및 교회, 시민단체 간의 조정과 협력의 중진을 꾀하고 사회복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적 입장에서 교회가 사람들의 각종 사회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회복지적 자원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하느님을 믿는 클라이언트나 사회복지사들은 교회 자원을 잘 활용함으로써 개인 혹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를 새롭게 맞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지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쌓아놓은 높은 역량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인철, “카톨릭 신자들의 사회복지의식 ...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1세기 한국 카톨릭 사회복지의 전망』, 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 1996.
- 강혜영,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사업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곽안전, 『한국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73.
- 권세열, 『지도요강』, 대한청소년 성경구락부, 1955.
- 권오구, 『사회복지 발달사』, 홍익제, 1997.
- 기준서, 『신약교회론』, 그리스도 대학 출판부, 1996.
-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 김기원, 『기독교 사회복지론』, 대학출판사, 1996.
- 김덕준, “기독교와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 겨울호, 1963.
- 김동배, “기독교 사회봉사의 비판적 고찰”, 『연세대 사회복지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1994.
- 김명룡,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다일공동체 창립8돌 심포지엄 주제 강연, 국민일보, 1997. 7. 4.
- 김상균, 최일섭, 조홍식, 최성재, 김혜란,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사, 2001.
- 김상균, “민간 주도형 복지모형”, 『사회복지연구』, 제15집, 대구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1987.
- 김수현, “지역복지 협력체계 구축방안”, 『새천년을 향한 한국의 사회복지』, ‘99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 학회, 1999.
- 김연택, 『한국교회와 교회성장』, 대한신학대학원 출판부, 1998.
- 김용복, “한국기독교 사회봉사와 사회복지”, 개교 70주년 기독교 사회복지 학술 심포지움, 전주한일신대 기독교 종합연구원, 1993.

- “사회발전의 신학적 준거들”, 『사회발전과 사회운동』, 숭실대학교 기독교 사회연구소, 1992.
- 김용일, 조홍식, 김연옥 공저, 『사회사업 실천론』, 나남출판사, 1999.
- 김의환, 『교육사』, 세종문화사, 1979.
- 김장대, 『기독교 사회복지학』, 도서출판 진흥, 1998.
- 김창섭, “한국교회의 지역사회 참여 방안연구”, 서울신학대 석사학위논문, 1997.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 박영복, 『한국기독교 사회교육사』, 세종문화사, 1994.
- 백 린, 『재무행정론』, 서울프레스, 1999.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관계 자료집』, 1967.
- 순복음사회사업선교회, 『1998년 제18차 정기총회』, 1998.
- 유재현, “참 교회의 모습은 어떤것인가?”, 다일공동체 주제강연, 국민일보, 1997. 7. 4
- 유의웅, “교회와 지역사회 봉사”, 『교회사회 봉사 총람』, 예수교 장로회 총회, 1998.
- 유홍열, 『한국문화사 대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0.
- 이영갑, “예창(통합)의 사회봉사현황과 과제”, 『교회사회 봉사 총괄』, 예수교 장로회 총회, 1998.
-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 연감』, 1997.
-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적 기능”, 『신학과 세계』, 1991.
- 이원교,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성서연구사, 1992.
- 이인재, “지역복지 협력체계 구축방안”, 『99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
- 이태수, “시민사회에 있어서 카톨릭 사회복지의 역할”, 제2회 종교사회복지 포럼세미나 자료집, 2001.
- 임구원,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교회 역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 논문, 1991.
- 정무성, “종교의 사회복지”, 『21세기 한국, 복지사회로의 도전』, 제10회 전국 사회복지 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9.
- 장병욱, 『한국 감리교 여성사 (1885~1945)』, 성광문화사, 1979.
- 장형일, 『한국구세군사』, 구세군 대한 본령, 1975.
- 최무열,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나눔의 집 출판사, 1999.
- 최윤권, 『교회가 하나되는 길』, 홍익제, 1992.
- 최일섭, “종교사회 복지의 역할과 과제”, 제1회 사회복지 학술세미나, 불교복지 문화 연구소, 2003.
- 최일섭, 류진석, 『지역사회 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최항순, 『발전행정의 이론과 실제』, 신원문화사, 1998.
- 크리스찬 신문, 1997.
- 태화기독교사회관, 『태화기독교 사회관 50년사』, 태화기독교 사회관발행, 1971.
- 황을호, “한국 농촌에서의 교회중심 지역사회 개발 가능성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 Abrecht P., *The Churches and Rapid Change*, 정하은 역, 대한기독교서회, 1967.
- Coewenberg F. M., *Religion and Social Work Practice in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N.Y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Feiedlander W. A., *Concepts and Methods of Social Work*,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76.
- Fellin P., *The Community and the Social Worker*, Peacok Publishers, Inc., 1995.
- Garland Diana R., *Church Social Work: An Introduction*, *Church Social Work*, North 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s in Social Work, 1992.
- Garland Diana R., "Church Social Work", *Encyclopedia of Social Work*, Vol. 3 Washinton D.C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 1995.

- Gilbert N. and Specht H.,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4.
- Hessel Dieter T., *Social Ministry*, revised edition, Louisville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 Jay Eric G., *The Church*, Atlanta, : John Knox Press, 1980.
- Kramer R., *Voluntary Agencies in the Welfare State*,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81.
- Lee S., "Perceptions of Quality of Life in an Industrializing Country :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Social Indicators Reserch*, Vol. 10, 1995.
- Lindeman Eduard C., *The Community*, New York : Association Press, 1921
- Loewenberg Frank M., *Religion and Social Work Practice in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 Marty, M. E., "Social Service : Godly & Godless", *Social Service Review*, 1980.
- Martinez Emilia E. - Brawley, "community",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ed., New York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1995
- Mayo M., *Communities and Caring*, Hampshire: Macmillan, 1994.
- Miles D., "Church Social Work and Evangelism: Partners in Ministry", *Review and Expositor*, 1988.
- Seifert H., *The Church in Community Action*. New York : Abingdon-Cokebury, 1952.
- Star P., "The Meaning of Privatization", in S. Kammerman, and A. Kahn, *Privat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rinceton University, 1989.
- 小林公一, 「기독교 교육」, 엄문용역, 보이스사, 1984.

ABSTRACT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hurch Resources for Community Welfare

Cho, Suck Mi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Welfare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roughout social welfare history, the Christian churches have played a substantial role in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poor, sick and other people in need. Since the 20th Century a number of Korean churches have served community in which they are located. But in recent years Korean churches have been widely criticized that they tend to neglect their important role to contribute to taking part in the voluntary efforts for the welfare of the community they are expected to serve.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much the Korean churches are utilizing their manpower, facilities, financial resources and others for community welfare and to provide feasible measures to improve their community welfare efforts. This study found out that since 1990 Korean churches have increased their resources for community welfare. But, compared to their increased assets, the Korean churches have to do a lot in playing a supplemental role in community welfare.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for Korean churches : 1) It is desired that Korean churches spend more than 10% of their financial resources for the needy people in their community. 2) Churches should encourage their memb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voluntary activities in their community. 3) It is proposed that churches should organize 'welfare council' in cities, towns and villages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welfare efforts.